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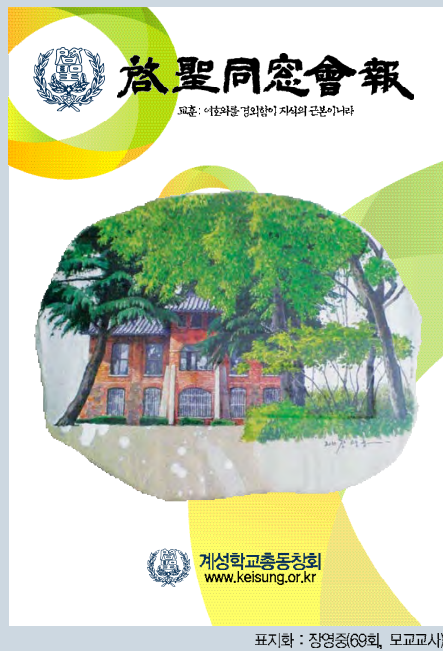


啓聖同窓會報

교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계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



계성동창회보 〈통권 55호〉

발행일 : 2011년 5월 15일
 발행인 : 이 병 구
 편집인 : 김 정 길
 발행처 : 계성학교총동창회
 주 소 : 700-720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전 화 : (053)255-3900
 전 송 : (053)256-4942
 인쇄처 : 금성기획
 전자우편 : keisung@keisung.or.kr
 홈페이지 : 계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



계성학교총동창회
www.keisung.or.kr

啓聖同窓會報

목 차

발간사 및 축사

- 04 발간사 - 총동창회 회장 이병구(53회)
- 05 축 사 - 계성장학재단 이사장 박성대(38회)
- 06 축 사 - 前 대통령비서실장 김용태(41회)
- 07 축 사 - 재경동창회장 윤동한(52회)
- 08 축 사 - 계성고등학교 교장 김재현(59회)
- 09 축 사 - 계성중학교 교장 손용식(60회)

총동창회

- 10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개최
- 14 총동창회장과 5기별 회장단 회동
- 16 친선축구대회

기별·동호회·지역별·해외동문회 소식

- 18 기별소식
- 25 동호회 소식
- 26 지역별 소식
- 28 해외동문회 소식

기별 특집

- 30 47회 재경동창 칠순잔치
- 31 古稀 기념여행

동문 동정

- 32 동문이 뿔다

동문 인터뷰

- 34 윤석용(58회) 국회의원
- 36 박은수(62회) 국회의원
- 38 안병근(68회) 용인대학교 교수

모교소식

- 40 모교소식

동문기고·모교 교사기고

- 43 동문기고
- 52 모교 교사기고

임원명단

- 54 총동창회 61대 회장단
- 56 재단법인 계성장학회 임원
- 57 기별·지부별·동호회 임원명단

장학기금·재학생 Mentor협찬자·회보구독료

- 60 장학기금 납부자 내용
- 63 기수, 지부별 납입금 내용/재학생 Mentor협찬자
- 64 회보구독료 납부자 내용

「계성동창회보」를 새롭게 발간하며...



총동창회 회장 이 병 구 (53회)

존경하는 6만여 계성동문 여러분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문 여러분들의 후원과 멘토링에 힘입어 모교와 동창회가 성장을 거듭하게 하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문들의 근황과 학교가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신문 형식의 회보를 통해서 배포해오고 있습니다만, 보관 및 지참성을 높이고 보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 잡지 형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문 여러분!

회보에 보다 더 많은 우리 동문들의 활동 내용들을 생생하게 실기 위하여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기고와 바람들을 동창회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창회 사무처에서는 단지 회보 편집만 할 뿐이고 그 내용은 우리 동문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보 발간에 앞장서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회보 발간이 우리 계성동문들 간에 보다 더 정진된 소통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에워싸길 바라며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계성의 희망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피어납니다!



계성장학재단 이사장 박 성 대 (38회)

계성 동문 선후배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평화와 신뢰, 사랑과 온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계성학교의 전통이자 오십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춘의 젊은 날을 보낸 우리 동문 모두의 생활 철학이었으니, 늘 건강하고 뜻 하는 바 두루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선후배 여러분!

이제 우리 계성은 자사고 출범과 함께 새 출발과 도약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동창회도 재차 심기 일전하여 새롭고 활기찬 사업도 펼치고 동문간의 우호도 더욱 다져야겠습니다.

많은 동문들의 뜨거운 지원 열기에 힘입어 일취월장 발전해온 장학회에도 주마가편의 힘을 보태야겠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총동창회에서는 동문 모두 모두가 '1인 10구좌(10만원)'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액의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내신 선후배님들의 면면을 밝히고 심심한 감사의 뜻을 동창회보에 누차 표했습니다만, 소액일지라도 다수 동문들의 밀알과도 같은 성의가 모여 동창회를 발전시키고 장학회를 부흥시키는 일 또한 그 어떤 것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미덕이요, 멋진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동문들이 '1인 10구좌' 운동에 동참하여 동창회 활동에 화합과 단결의 따뜻한 기운도 더욱 세차게 불어넣고 후배들의 학업과 미래, 그리고 모교의 영광을 밝히는 일에 활화산 같은 조력자로 탄생하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선후배님들 모두의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성의 역사가 되는 회보 발간을 축하하며...



前 대통령비서실장 김 용 태 (41회)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계성회보는 우리 동문의 뜻 깊은 매체입니다.

100년 전통의 명문 계성의 동문들은 계성 출신으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리는 기회는 어쩔 수 없이 많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생활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동창회보는 동문간의 소식을 전하고 모교의 근황을 알리는 계성정보의 광장입니다. 때문에 동창회보를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은 우리 동문의 책무입니다.

이번에 이 회보를 책자화 한다니 반갑습니다.

우리 동문들을 위해 발전적인 일이라 치하하고 싶습니다. 회보 발간을 위해 애를 쓰는 임원과 편집진에 감사드립니다.

회보는 우리 동문의 얼굴일뿐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가는 계성의 역사입니다. 한번 보고 버릴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간직하여 가끔 볼 수 있으면 모교애와 동창애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문 다함께 회보를 아끼고 키워야하겠습니다. 소식이 있으면 전하고 뜻이 있으면 개진하는 계성광장으로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지는 계성회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샘이 깊은 물처럼



재경동창회장 윤 동 한 (52회)

존경하는 同門 여러분, 재경동창회장 윤동한입니다.
대구 최초의 명문 사학인 모교가 올해로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적 경쟁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들도 문명적 격동기를 맞아 그 位相과 役割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을 지향하는 모교가 同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歷史적인 교육가치 창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훌륭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根固枝榮, 泉深流長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무성하고 샘이 깊어야 멀리 흘러간다)!

100여년의 歷史는 누구나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價値가 아닙니다.

모교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준 모교의 6만 여명의 同門들은 지역, 국가, 나아가 세계 각지에서 影響力있는 인사로 활약하고 있어 명문의 고등학교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의 리더로서 우리 同門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變化, 創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끊임없는 挑戰을 이끌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미래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 있는 人才 양성과 창의적인 지식창출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모교의 사회적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그 사명을 견고하게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 학문적 가치 창조와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1세기 모교가 꿈꾸는 교육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꿈의 표준은 지금이며 그 성장동력은 모교의 모든 同門이십니다. 이에 모교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보의 개편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빛나는 모교의 역사가 본 회보를 통해 차곡차곡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同門의 가정과 사업에 평안함과 강건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모교와 총동창회가 서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계성고등학교장 김 재 현 (59회)

지령 제54호까지 신문으로 발간되던 계성학교 총동창회보가 이제 책자로 발간되게 됨을 6만여 동문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우리 계성동창회는 그 동안 경향 각지의 어느 학교 동창회보다도 그 활동이 활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동문들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별로 동창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은 물론 동아리별 활동을 통해서 자기 발전과 끈끈한 인간관계 형성에 모두들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재학생들에 대한 멘토 장학지원 계획 등 후배와 모교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일에 너나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계성인이기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계성인만의 미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탕에는 아마도 학창시절에 50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듣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뒤통수에 녹아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모교, 계성학교도 여러 동문들 못지않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명 앞에 '자율형 사립'이란 수식어가 붙음으로 시중에 흔한 보통학교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명품학교, 명문학교로서 위상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2010학년도에는 각종 학력평가 및 모의고사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1위를 하였으며, 각종 경시대회에서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 분위기 또한 큰 변화를 가져와 교육과정 역시 타 학교와는 차별화된 내용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 체험학습, 어학연수 등 타 학교가 따라오지 못하는 계획들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평준화 틀 속에서 빛을 잃어가던 계성은 이제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 정말로 햇빛보다 더한 광채를 다시 온누리에 비출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3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난 날 여러분들이 가졌던 높은 자긍심을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창회는 모교의 발전을 생각하고, 모교는 동창회의 발전을 서로 생각할 때 계성학교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계성학교 총동창회보가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하여, 학교와 동창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성의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계성중학교 교장 손 용 식 (60회)

계성의 수많은 동문과 함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계성학교 총동창회 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개교 105주년을 맞이하는 계성학교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지금까지 동창회 회보가 한층 더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 뜻 깊은 사업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새로운 경험을 맞이합니다. 자연 재해와 커다란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몹시 당황해 하지만 우리 계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내외에서 굳건히 서가고 있으니 든든한 마음뿐입니다.

이번에 총동창회에서 계성의 위상에 걸 맞는 새롭고 알찬 회보를 발간하여, 이를 계기로 우리 계성 6만 동문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 계성의 힘을 잘 결집해줄 수 있는 우리 몸의 싹틔줄과도 같은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성학교는 전국 3,000여개 고등학교 가운데 파워 엘리트 배출 순위 20위권에 드는 굉장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이 책자회보 발간을 계기로 계성총동창회의 힘이 결집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계성학교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계성학교가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기독교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인재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의 굳건한 단결로 계성학교에 대한 총동창회의 외적인 지원이 결합한다면 계성학교는 큰 도약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계성 총동창회와 계성학교의 성장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아름답고 존귀한 학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간절한 믿음이 만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보가 계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위대한 계성의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회보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총동창회 이병구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직접 편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개최

지난 1월 20일 개최된 계성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는 예년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며 계성동문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끈끈해지는 우애에 너나 할 것 없이 감동받은 그날, 그 시간을 기억에 새긴다.



▲이형두(30회) 전 교장선생님에게 장수상 전달



▲박성대(38회 · 전회장) 격려사

계성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가 1월 20일 그랜드호텔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이병구(53회) 총동창회장, 박성대(38회) 명예회장, 김용태(41회) 前장관 등을 비롯하여 350명에 이르는 많은 선후배 동문들은 물론 김태동 계성학교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총회는 예년과 같이 기도로 시작되었다. 기도는 최태조(48회) 목사가 맡았다. 최 목사는 모교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따뜻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계성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본 행사는 김정길(56회) 총동창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2010년 업무경과 보고, 김덕수(51회) 감사의 감사보고, 김정길 사무처장의 2010년 결산보고, 2011년 예산안 보고 순서로 펼쳐졌다. 동문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1부 순서의 진행에 동참하였다.

이어 박성대 명예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임기가 만료된 총동창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결과, 회장에는 이병구(53회) 現 회장을 만장일치로 연임(2년)시켰다.

연임 선출된 이병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 동안 적극 협조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새로운 2년 동안은 뒷다리가 길어 오르막을 잘 뛰어가는 토끼처럼 상승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귀가 커서 소리를 잘 듣는 토끼처럼 필요한 것만 잘 듣는 동문들이 되자”는 점도 강조하여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이병구 회장은 “임기 중에 달성할 목표로 첫째 동문 상호간 소통, 둘째 모교 발전 사업 지원, 셋째 멘토링 사업 등으로 정하는 바 동문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당부의 말도 하였다.



▲김용태(41회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축사



▲김태동 재단이사장 축사



이병구 회장 재선임, 박연탁 동문 감사 선출

총동창회장 재선임 선출에 이어 감사에는 박연탁(50회) 동문이 새로 뽑혔다. 오랜 기간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대구지역에 계성의 이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온 박 동문의 감사 활동에 동문들은 큰 기대를 표시하였다.

이어서 축사를 한 김태동 재단이사장은 “자율고로 날로 발전하는 모교가 곧 그 위용이 곧 나타날 것임을 예견”한다면서 “모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께서 많이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2부 순서는 이병구 총동창회장의 건배 제의로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잔을 채워든 채 일치단결하여 건배 구호를 우렁차게 외쳤다. 이어 만찬이 시작되었다.

한편 이날 총회 및 신년교례회에는 54회 동기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54회에서는 이창동 동기회장을 비롯하여 김기룡 총무, 김영조, 김중기, 김철생, 강석진, 나정수, 박기창, 박민희, 박윤규, 장승환, 조승묵, 정봉규, 이무식, 우명정, 우진권 총무, 최두원, 최정태 총무 등 모두 18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54회는 동기회 홈페이지에 총회 및 신년교례회 스케치도 신뜻하게 올림으로써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에게도 소식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였다.

글 : 총동창회 사무처장 김 정 길(56회)



총동창회장과 5기별 회장단 매주 회동

모교와 동창회 발전 방안 주고받아 “큰 역할 기대”

이병구 총동창회장과 기별 회장단의 연석 회동이 지난 4월부터 매주 열리고 있다. 기별 회장단은 5기씩 합동으로 한 자리에 모여 이병구 총동창회장과 더불어 모교 발전 및 동창회 도약에 대한 고견을 나누고 있다. 이런 사례는 일찍이 없던 일로 향후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6회, 57회, 58회, 59회, 60회 회장단 회동

지난 4월 22일, 대구 수성구 봉회가든에서 모였다. 이병구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늘 기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회장, 총무님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선후배간에, 그리고 동창회 동문끼리 좀 더 가까이 가고자 만남을 주선했다”면서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면 유대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선배 5기수, 후배 5기수로 10년 관계를 형성하여 폭넓은 동창회 인맥을 구성함으로써 서로 협조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인사 말씀에 이어 모두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기별 대표자들은 공히 선후배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으며, 이병구 총동창회장은 각 기수별로 질병 등 어려운 동문 방문을 통한 위로 행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0회 이인직 회장은 60회 교양아카데미강좌를 개설하여 의사, 경영자, 문화가 등이 강연을 하고 있다는 특색 있는 사업을 발표하여 눈길을 모았고, 60회 성백관 총무는 약 750명이 졸업하였는데 이미 60여 명이 타계했다는 소식과, 중고 졸업생 가운데 20여 명이 목사로 있고, 교단 근무자가 100여 명이라는 근황을 소개했다. 성백관 총무는 “우리 계성은 동기간 모임은 활발하나 선후배간

교류가 부진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편 57회 장영진 전회장의 제안으로 즉석에서 ‘(가칭)오기회’가 발족되었는데 회장에 장영진 동문, 총무에는 이인직, 성백관(60) 동문이 박수 속에 뽑혔다.

54회, 55회, 61회, 62회, 63회, 65회 회장단 회동

4월 29일, 이번 회동도 역시 봉희가든에서 열렸다. 54회 회장 이창동 동문은 남녀공학으로 인한 학력저하에 우려를 나타냈고, 최정태 총무는 총동창회와 각 동기회의 이사회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면 향후 발전에 더욱 박차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55회 서대열 회장과 박수향 총무는 55회 산우회 활동이 매우 왕성하여



대회 부부 30여명 모인다는 성과를 발표했으며, 61회 배영호 총무는 재경동기회와 간간히 합동 산행을 하고 있고, 4월 4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합동으로 용지봉에 올랐다는 근황을 보고했다. 또 신현철 총동창회 부회장 협찬으로 사랑방도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2회 박태환 회장과 구철교 총무는 당구회, 산우회, 여학생회(부인들)등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63회 석찬영 회장과 황규재 총무는 5월 5일 옥천에서 야유회를 통한 단합대회 예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65회 홍종욱 회장과 김진걸 총무는 ‘뽕뽕이 1기’로서 막강화력을 과시하였는데, 골프 1등, 등반, 테니스, 바둑 우승, 각종모임 기본 100여명 참석을 자랑하였다. 김진걸 총무는 후배기수(75회 이후)를 총동창회 각종 활동과 회보편집 등에 참여시켜 유대강화와 기별 활동 분발 촉매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모임은 전반적으로 기수별 활동이 왕성함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64회는 신입회장단이 아직 결성되지 않은 관계로 불참하였다. 이병구 총동창회장은 이날 80회 이후 기수의 축구 모임을 통한 총동창회 참여 확대 요청에 금년 체육대회부터 회장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병구 총동창회장과 5기별 동기회장단 모임은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빠짐없이 열릴 예정이다. 날짜별 해당 기수 회장단에서는 치밀한 사전 준비(참가 연락, 의견 수렴 등)를 통해 더욱 우수한 성과를 거둬으로써 어렵게 자리를 마련한 보람을 가일층 확대생산 할 예정이다.

계성인이 다들킨다!

친선 축구대회



그깟 추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빗방울이 떨어진들 우리의 에너지를 식힐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뛰는 이 운동장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된다.
뛰어라! 계성인!



지난 4월 3일 강변축구장 제1구장에서 계성FC 주관 동문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치러진 이날 대회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동문 7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간간히 빗방울이 흩날렸지만

계성동문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축구경기에 매진하였으며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승부로 스트레스를 날렸다.

선후배간에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된 금번 친선 축구대회가 앞으로 매년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년도 총동창회 상반기 행사

동문 여러분과 함께하는 총동창회!

늘 같은 자리에서 웅골지게 피어나는 꽃처럼 올 상반기에도
동문여러분과 함께 할 행사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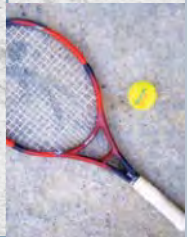
함께일 때 더욱 아름다운 계절인! 총동창회 행사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20회 기별 테니스대회 개최

기별 선후배들의 화합과 우애의 장! 제20회 기별테니스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1년 5월 1일(일)
- 장 소 :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 주 최 : 70회 동기회
- 연락처 : 회장 김진식(70회) 011-822-4700



2

총동창회 기별 등반대회 개최

오는 5월 15일(일) 제13회 총동창회 기별 등반대회를 개최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동문여러분과 함께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 일 시 : 2011년 5월 15일(일)
- 장 소 : 팔공산
- 주 최 : 총동창산우회
- 연락처 : 총무 주이광(60회) 010-5598-9871



3

총동창회장배 기별 바둑대회 개최

총동창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동문 간 친목을 도모하는 총동창회장배 기별 바둑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1년 6월 12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추후 통보
- 주 최 : 기우회
- 연락처 : 총무 김기영(72회) 010-4504-5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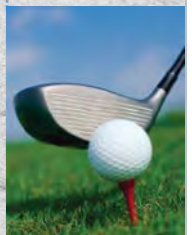


4

총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 개최

총동창회 동문 골프모임인 성목회는 총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를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개최할 이번 골프대회에 동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동문님은 노현석 총무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상주 블루원골프리조트
- 주 최 : 성목회
- 연락처 : 총무 노현석(69회) 010-3503-9451



기별소식

17회

■부고

신후식 목사 별세 (2010. 11. 11)

27회

■부고

서상훈 본인상 (2011. 4. 19)

45회

■부고

이동한, 부친상 (2010. 12. 3)

정재득, 본인상 (2011. 1. 8)

남태호, 부친상 (2011. 2. 3)

49회

■총회 개최

지난 1월 16일(일)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설충수 동기, 총무에 임병용 동기를 만장일치로 유임하기로 의결하고, 이어 2011년 동교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문동정

윤희주(대구성덕교회 담임목사), 『알기쉬운 성경강해』 신구약 전집 100권 출간

47회

■동문동정

마상곤 동문,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

지난 시절, 계성학교 50계단을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웃으며 오르내리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평소 동문 사이에 존경과 귀감의 대상이 되시며 늘 동창회 발전과 동문들의 화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시고, 사회와 회사, 그리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마상곤 회장님의 삶에 대해 우리 계성 47회 동문들의 입에서는 그 자랑과 칭송이 끊일 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온유하시며 내유외강하시어 경영하시는 5개 선박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오시고, 직원들을 내 가족같이 사랑하시기에 단 한명의 해운업 내 노조도 없이 45년이라는 긴 세월 간 한 우물을 파오신 당신의 끈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충실하자'는 생활신조와 철학을 갖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 가꾸기를 통하여 정신과 육체를 50대 청년처럼 유지하시며 살아오신 당신의 젊은 마음이 존경스럽습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시고 부인 광부선 여사님과 다복한 가정을 이루시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볼 때 정말 부럽습니다.

진정한 바다의 사나이로서 해양대학 총동창회 회장시절, 학교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하여 거금을 학교후원금으로 회사하시고 서울 광화문 쪽에 총동창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동문들의 만남과 쉼터를 제공하셨습니다.

평소 하신 업적과 학교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높이 평가하여 졸업한 대학에서 명예경영학 박사를 수여받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마상곤 회장님은 2010년 11월 4일 (목)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랑스러운 자리에서 부러움과 동시에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정말 잘 살아오셨구나, 정말 자랑스러운 계성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당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세계 속의 부국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주인공 되시는 당신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47회 동창회장 전 규 용



■경사

홍석천, 자녀 결혼 (2010. 11. 27)

이양조, 장남 결혼 (2011. 2. 19)

김봉식, 차남 결혼 (2011. 3. 16)

■부고

정재득, 본인상 (2011. 1. 8)

50회

■경사

홍대일, 자녀 결혼 (2010. 11. 13)

■부고

김대곤, 모친상 (2010. 12. 13)

조재충, 본인상 (2010. 12. 28)

김덕수, 모친상 (2011. 1. 8)

51회

■정기총회 개최

2010년 12월 15일 덕영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회장에 이인구(경북대 농생대 교수) 동기를, 감사에는 신상식(前 대구초등학교 교장) 동기를 선임하였다. 2011년도 집행부는
회 장 : 이인구

부회장 : 박순태, 박상옥, 방근태, 이석재, 최정수

감사 : 신상식 / 이사 : 다수 / 총무 : 남기진

재무 : 최윤희 / 섭외 : 양정환

■동기회 사무실 이전

3월 7일 동기회 사무실을 중앙로역 옆 한일식당 2층으로 이전, 성대히 개소식을 갖고 임시총회도 열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금년도 예산 16,126,491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주요 사업은 2014년도 졸업50주년 기념행사를 겸하여 칠순잔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부고

윤용균, 부친상 (2011. 1. 14)

52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신라뷔페 신관 3층에서 52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가 개최되었다. 동문 및 동문가족 총 6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

에서는 2011년도 새 집행부를 선출하였고, 오는 5월에 있을 재정 동기회와 만남의 행사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어 오는 10월 초 예정인 '추억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부 행사인 신년교례회에서는 푸짐한 상품과 행운권 추첨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문동정

• 류우하, 전국 90개 시니어클럽 중 2010년 최우수 기관장에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상

• 유윤철, 온산
유항비료공장
기공식 거행
(2011. 4. 8)



■경사

최연호, 장남 결혼 (2011. 5. 29)

53회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



2010년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 스파밸리 애지앙 장미홀에서 동기회 정

기총회 및 송년회가 있었다. 30여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의 주요 안건은 2011년도 동기회를 위해 봉사해줄 집행부 선임 건으로, 이날 회장에 정갑동 동기, 총무에 배중규 동기, 감사에 고봉근, 이춘식 동기가 선임되었다. 이어 진행된 송년회에서 동기들은 술잔을 나누며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3 산악동우회 정기산행

지난 1월 9일 거제 노자산으로 2011년도 첫 정기산행을 다녀온 53 산악동우회는 지난 2월 13일 옥수골에서 시산제를 갖고 올해에도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동문동정

• 고재철, 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 취임
(2011. 1. 11)

- 최백영, 대구시 제16대 의정회 회장 취임 (2011. 4. 11)

■경사

- 김선영, 차남 결혼 (2010. 1. 16)
- 정대기, 장녀 결혼 (2010. 12. 25)
- 전상진, 장남 결혼 (2011. 1. 23)
- 백경진, 장남 결혼 (2011. 2. 12)

■부고

- 이영식, 모친상 (2010. 11. 12)
- 박진영, 부친상 (2011. 2. 11)

54회



2010년 12월 7일 제31차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여 많은 동인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동기회 집행부를 선임하고 이어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1년도 동기회 집행부 및 임원명단〉

회 장 : 이창동

부회장 : 이호수, 김복수, 박병택, 이무원, 이무진

총 무 : 김기룡, 최정태, 우진권

이 사 : 이호수 외 52명

■2011년 1차 이사회 개최



지난 2월 11일 개최한 1차 이사회가 많은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동기회 사업과 예산안을 심의·승인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창동 동기회장과 이호수, 김복수, 박병택 부회장을 비롯하여 32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였다. 이창동 동기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도 이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동기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어서 우진권 총무가 회장에게 검토와 승인을 받은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이사들은 이를 심의 후 통과시켰다. 최정태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는 항목별 의제를 순서대로 마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54회 테니스회 납회

2010년 11월 20일 납회를 개최한 테니스회는 2011년도 회장에 허정 회원을 추대하였다.

■54회 성산회 정기산행

2010년 12월 19일 대구시 수성구 성암산 일원에서 성산회 정기산행을 개최하였다. 이날 산행을 마친 회원들은 수성구 한 식당에서 납회를 가졌으며, 2011년도 신입 회장에 정태우 회원을, 총무에 나정수 회원을 각각 선출하고 지난 한 해동안 수고한 강석건 회장과 정태우 총무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동문동정

- 김중기, 대구지방변호사회 제50대 회장으로 선출



- 김신길, 제22대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신입 이사장으로 선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신입 조직 위원장에 선정 (2011. 2. 14)
- 손수상, 대한외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
- 손영대, 사회봉사 등 대구시장 표창장 수상

■경사

- 이상규, 자녀 결혼 (2010. 12. 4)
- 허일신, 자녀 결혼 (2010. 12. 11)
- 정태우, 자녀 결혼 (2010. 12. 18)
- 조승묵, 자녀 결혼 (2010. 12. 19)
- 설재규, 자녀 결혼 (2011. 1. 15)
- 김진도, 장녀 결혼 (2011. 2. 12)
- 장승환, 자녀 결혼 (2011. 2. 12)
- 박영직, 자녀 결혼 (2011. 2. 19)
- 박호환, 자녀 결혼 (2011. 3. 19)

■부고

- 정재식, 모친상 (2011. 1. 8)
- 유경술, 모친상 (2011. 1. 23)

56회

■회장단 회의 열려

지난 1월 22일(토) 그린힐집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

고 2011년 새롭게 56회 동기회를 이끌어갈 집행부를 구성하고 동기회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

지난 2월 11일(토) 자금성에서 56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많은 동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임회장에 남시탁 동기를 선출하였고, 부회장에 김교현, 김규호, 우병국 동기를, 총무에 최돈문 동기를 선출하였다.

■한아름회(동기회부인모임) 2박3일 제주도 야유회

56회 동기회 부인들의 모임인 한아름회에서 2박3일로 제주도 야유회를 떠나 동기 및 동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우애를 나누었다.

■동문동정

- 이경우, 계성총동창테니스회 회장 선임 (2010. 10. 25)
- 이재운, 민족통일협의회 회장 재선임
- 변한석, 유진건설 전무 취임 (2010. 12. 1)
- 서진원, 신한은행 새 행장 취임 (2010. 12. 30)

■경사

우병국, 자녀 결혼 (2010. 11. 20)
나채문, 자녀 결혼 (2010. 11. 21)
김교육, 자녀 결혼 (2010. 11. 24)
김주동, 장남 결혼 (2010. 12. 12)
정철규, 자녀 결혼 (2010. 12. 19)
강상학, 장남 결혼 (2011. 1. 15)
김재화, 장남 결혼 (2010. 1. 15)
박우동, 장녀 결혼 (2011. 1. 15)
최상용, 자녀 결혼 (2011. 1. 15)
임상규, 자녀 결혼 (2011. 2. 27)
이재운, 장녀 결혼 (2011. 4. 2)
조영선, 장남 결혼 (2011. 4. 2)

■부고

권오룡, 모친상 (2010. 11. 2)
김재화, 모친상 (2010. 11. 3)
서현열, 모친상 (2011. 1. 19)
서영근, 모친상 (2011. 1. 20)
김교현, 부인상 (2011. 2. 9)

57회

■경사

장영진, 자녀 결혼 (2011. 2. 27)

58회

■동문동정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에 선임 (2011. 3. 8)

59회

■부고

박무석, 모친상 (2010. 12. 30)

60회

■동문동정

- 서만근, 한국자치평가원 이사장 취임 (2010. 11. 1)
- 이창욱, 대구지방조달청장 부임 (2010. 12. 15)
- 김영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관리과장으로 영전 (2011. 2. 21)
- 한채권, 대구경북 염색공업협동조합 제20대 이사장 취임 (2011. 2. 24)
- 임운형, 대륜고등학교장 취임 (2011. 3. 1)
-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대학원 원장 취임 (2011. 3. 1)
- 임경국,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장 명예퇴임 (2011. 3. 7)
- 정태호, 농협중앙회 경제연구소 전무이사로 승진
- 박정환,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선임 (2011. 3. 17)

■경사

성백관, 자녀 결혼 (2011. 1. 15)

61회

■동기 합동 봄나들이

2010년 4월 2일 61회 동기회는 합동(서울, 부산, 대구경부) 봄나들이를 떠나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KY61 재건

서울, 성남, 광주, 용인지역의 SKY61 모임이 20여 명의 동기생들이 모여 재건되었다.

■동문동정

- 김성구, 경명중학교 교장으로 발령
- 남 식, POSCO 상무이사로 선임
- 이승훈,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 영전
- 이화조, 예음색소폰오케스트라 단장 취임
- 최칠암, 우리은행 부행장에 연임
- 김진하, 목욕용 스폰지 쇼핑몰 '예피나라' 개업
- 정만진, 대구의 풍경 사진전 (2011. 3. 29~4. 3 봉산문화회관)

■경사

- 최성룡, 자녀 결혼 (2010. 10. 23)
- 김두환, 장남 결혼 (2010. 11. 24)
- 박고수, 차남 결혼 (2011. 1. 22)
- 손종휘, 자녀 결혼 (2011. 2. 19)
- 배영호, 자녀 결혼 (2011. 4. 30)
- 김봉갑, 자녀 결혼 (2011. 5. 15)

■부고

- 구형회, 빙모상 (2010. 12. 10)
- 박화석, 모친상 (2010. 12. 25)
- 최칠암, 빙모상 (2010. 12.)
- 이영옥, 모친상 (2011. 1. 12)
- 김성근, 부친상 (2011. 3. 13)
- 박충호, 빙모상 (2011. 4. 27)

63회

■2010년도 정기총회

63동기회에서 한 해의 끝자락에 정기총회를 갖고 동기회 화합을 다졌다.



■2011년도 이사회 개최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 영남별장에서 동기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동문동정

- 손종야, 대우건설 임원으로 승진

- 박종윤, 삼성카드 전무로 승진
- 이두복, KT 임원(수성 지사장)으로 승진
- 반응음, 삼성선물 사장으로 승진
- 정동훈, 구미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으로 임명
- 김광수, 고령 교육청의 장학사로 전근
- 이인수,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이휘진,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로 발령
- 최병현, 경주 경찰 서장으로 부임
- 홍억선, 대구수필가협회장 취임

■경사

- 김정환, 자녀 결혼 (2011. 1. 30)
- 최광호, 자녀 결혼 (2011. 3. 19)

■부고

- 김기억, 부친상 (2010. 11. 1)
- 서호영, 장모상 (2010. 11. 30)
- 오대현, 모친상 (2010. 12. 9)
- 박권식, 모친상 (2011. 1. 16)
- 곽영우, 부친상 (2011. 1. 20)
- 하회수, 장인상 (2011. 3. 5)
- 윤성환, 모친상 (2011. 3. 6)

64회

■2010년 송년의 밤

2011년 12월 17일 오후 7시 웨딩캐슬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밤을 보냈다.

■축우회 제3회 수성구청장기 풋살대회 우승



축우회가 제3회 수성구청장기 풋살대회에서 예선전 2승 1무로 결승에 진출하여 하나FC에 6:0으로 승리하여 우승하였다. 한편 축우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시지 대구풋살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동문동정

- 이병환, 경북도청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영전

■부고

김상길, 장인상 (2010. 12. 10)

오병호, 장인상 (2011. 1. 17)

권오성, 부친상 (2011. 1. 21)

65회

■정기산행 및 시산제 개최

지난 1월 16일 65회 동기회는 35명의 동기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산행을 개최하고, 청룡산에서 2011년도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가졌다.

■신년회 개최



지난 1월 29일 (토) 65동기회 신년회가 수성 관광호텔에서 개최되었다.

45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신년회에서 2010년 사업계획 결과 보고와 함께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였고, 신임 회장단 (회장 : 홍종욱 / 총무 : 김진걸) 인사가 있었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앞으로 65회 동기회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고,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며 새해덕담을 나누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49차 정기산행



지난 2월 20일 (일), 65회 동기회가 49차 정기산행을 개최하여 동기

30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기회 사무실 개소

65회 동기회에서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이날 개소식에서 동기 15명이 참석하였다.

■재경65회 신년회 및 총회

재경65회 동기회가 종로2가 시골집에서 신년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임재경회장인 강명욱 (메리츠자산운용대표이사) 동기를 선출하였다.

■워크샵 및 골프대회 공고

일시 : 2011년 5월 21일~22일

장소 : 문경컨트리클럽 및 수안보 한화콘도

일정 : 21일 오전-반대향 골프대회(48명 참석 예정)

오후-수안보 이동 : 동기워크샵 및 단합대회

22일 조식 후 트레킹 및 온천욕

■동문동정

• 김희혜, 구미금오여고 교감 승진 (2011. 3. 1)

• 홍성창, 경주 양남중 교감 승진 (2011. 3. 1)

■경사

홍종욱, 자녀결혼 (2011. 2. 13)

■부고

안승철, 부친상 (2010. 11. 15)

이주석, 부친상 (2010. 12. 14)

박두호, 부친상 (2011. 1. 15)

이종석, 모친상 (2011. 1. 11)

박경호, 본인상 (2011. 1. 12)

조일환, 빙모상 (2011. 2. 10)

제근영, 부친상 (2011. 2. 12)

이상면, 빙부상 (2011. 2. 16)

박 철, 부친상 (2011. 2. 19)

67회

■졸업30주년 기념 시은회 겸 송년회



졸업 30주년 기념 시은회 겸 송년회를 2010년 12월 3일 (금) 오후 7시

부터 자금성에서 8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덟 명의 은사님을 초대해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5년 전, 400여명의 동기들과 가족들이 참가하였던 '홈커밍데이' 이후 송년회 모임에 대한 동기들의 열정이 식어버린 듯 하였으나, 이번 행사에 대구경북에 주거하는 동기들 위주로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67회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여덟 명의 담임선생님들이 참석하여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셨으며, 밤 10시가 넘는 시각까지 제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재학 시 연대장으로 활동하였던 이재면 동기를 만장일치로 동기회장으로 추대하였다.

68회

■동문동정

- 장경식,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준장으로 진급
- 김일수, 육군작전사령부 육군준장으로 진급

69회

■동문동정

- 박종문, 대구경찰청 강력계장 총경 승진

70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70회 동기회의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2010년 12월 4일(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세인트웨스턴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홈커밍데이' 이후 동기들의 참석이나 관심도가 줄어 예년보다 다소 적은 동기들이 참석했으나 그 열기만큼은 어느 해 못지않았다. 회칙 개정안을 1시간 여의 격론 끝에 모두 통과시키고, 이어 김진혁 現 재정총무를 2011년 한 해 동안 동기회를 이끌어 갈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았으나 다년간 총무 역임을 해 온 김진혁 차기 회장이 전체 동기회를 잘 이끌어 가리라 믿으며 동기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약속한 후, 1부 행사를 마치고 2차 호프집에서 마무리 정을 나누고 대망의 한 해 행사를 마쳤다.

■개업

김형곤, 〈법무법인 중원〉 설립

71회

■동문동정

김성훈, 동양종합금융증권 상인동 지점장 발령

72회

■상반기 임원단 회의

지난 3월 11일 범어동 소재 수국물회에서 임원단 40여명이 참석하여 상반기 임원단 회의를 가졌다. 72동기회는 2011년 김가환 회장, 윤성용 수석부회장을 필두로 부회장 25명, 이사, 감사 30명, 전직회

장 고문 8명, 총무 4명 등 전체 임원단 67명으로 구성되었다.

■2011년 행사준비

7월 : 하계야유회

9월 16일 : 하반기 임원회의

12월 3일 : 송년의 밤

75회

■풋살동호회 소모임



지난 2월 19일 2011년 시즌 오픈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진 75회 풋살동호회는 3월부터

성서 국민체육공원(성서운동장)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3월 4일(금) 20:00~21:00 3면/3월 11일(금) 20:00~21:00 2면/3월 17일(목) 19:00~20:00 1면/3월 23일(수) 19:00~20:00 1면/3월 31일(목) 19:00~20:00 1면으로 사용계약이 완료되었다. 4월부터는 사전계약에 의해 매주 목요일 20:00~21:00에 진행할 계획이다.

■부고

우희경, 모친상 (2011. 1. 23)

79회

■동기회사무소 헌판식



2010년 6월 24일에 창립한 79회 동기회는 아직 1주년도 안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많은 동기 회원들의 격려와 관심으로 지난 4월 10일 동기회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날 류재춘 동기회장을 비롯해 이남수 서울서부검찰청검사, 박상열, 조상우, 차순용 부회장과 김홍수 회계총무, 신흥범 기획총무, 정재광, 이상현, 김우기 동기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동호회소식

성목회 창립식



2010년 12월 2일 계성 71, 72, 73, 75, 77회 동문 20여명으로 구성된 골프클럽 '성목회'가 회장 김정도(71회), 총무 최명호(71회), 경기위원장 천상현(75회)을 필두로 창립식을 가졌다. 인터불고경산컨트리클럽에 연단체팀 등록을 마친 후 선후배간의 교류와 화합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상호간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매일 첫째 주 목요일 정기 모임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런 연유로 일목회라는 이름으로 단체팀명을 받기했으나 계성의 '성' 자를 앞세워 성목회로 수정하였다. 앞으로 회원 상호간 건강과 친목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동문선후배간의 격려와 성원을 기대한다.

목장회



2011년 3월 28일 자금성에서 73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목장회(목사/장로 모임)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사회는 총동창회 김정길 사무처장이 맡아 소신열(38회)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이어 이병구 총동창회장이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목장회가 동창회

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계성고 교장 김재현(59회) 장로의 축사에 이어 임시의장을 권영식(44회) 장로가 맡아 신입회장에 최태조(48회) 목사를 선임하였다.

회칙과 임원단을 전형위원(권영식(44회), 최태조(48회), 김재현(59회), 이병구(53회), 박이득(모교 교목))에게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고, 식사를 나누고 박재천(50회) 목사가 축도함으로 창립총회를 마쳤다.

이날 회원들에게 지금까지 작성한 주소록을 나눠주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전형위원 모임과 임원회 모임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식사대금은 신임 최태조 회장이 자원해서 부담했다.

호성회 모임 개최



호성회(회장: 김태룡, 69회)는 지난 4월 2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한기영(61회), 김태화(65회), 박해식(65회) 동문을 비롯해 30여명이 모여 최근 고려대 진학률이 부진한 모교의 발전을 위한 호성회의 활동방향 등을 협의했다. 또한 고려대 의대 교수로 영진한 김상대(74회) 동문에 대한 기념패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참석자 중 최고참 동문인 한기영 동문은 "모교 출신들은 계성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100년 사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간직한 모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전 동문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호성회는 계성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이다.

지역별소식

부산지부 회장 인사말



계성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지역동창회장 남인우가 지면으로나마 전국에 계신 선배님, 후배 동문들에게 인사말씀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해부터 총동창회보가 책자로 발간된다하니 우리 동창회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산지역동창회를 맡은지 1년 남짓한데 총동창회만큼은 못되더라도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동문들이 고향의 따뜻한 인정을 느끼고 선후배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활의 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동창회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계성인으로 사회생활 잘 하시는 동문들을 보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사회각처에서 성실하고 당당하게 생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때는 우리 동문들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에 업무 차 오시거나 발령받아 오시는 동문들에게도 저와 연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쑥스럽고 계면쩍더라도 두 세 번만 만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계성인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삼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성인들이 하시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도록 보살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부산지부 회장 남인우 (53회)

부산지부

■정기이사회

2010년 5월 13일 저녁 7시, 부산 동구 초량에 있는 노블리안 뷔페에서 2010년도 재부계성동창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인우 53회 동문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총무는 김승용 61회 동문이 유임되었다. 하병욱 48회 고문은 이날 자리에서 “우리부산 동창회의 역할이 많이 감소되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발하자” 고 당부하였고, 자리에 참석한 각 기수 대표들은 새로이 태어나는 자세로 계성동창회를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대구 총동창회 김정길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부산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정기총회 및 송년회

2010년 12월 9일(목) 오후7시, 노블리아 뷔페 7층

에서 재부산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1부 정기총회, 2부 송년회로 마친 이날 행사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동문간의 화합을 다졌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청도지부

■청도 동문회 임시회 개최



지난 2월 18일 이종복(59회) 회장 및 회원(가족포함)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재미(在美) 중 일시 귀국한 반재동(40회/초대회장) 동문의 조출한 환영회와 모교 중학교 교장으로서 정년퇴임한

이승균(53회/직전회장) 동문의 축하행사를 겸한 자리였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밤이 깊도록 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계성 청도 동문회 카페 개설



계성 청도 동문회가 카페를 개설했다. 다음(한메일)카페 '계성청도동문회'로 검색.

<http://cafe.daum.net/KSCD>(카페지기: 류상호 (61회))

경산지부

■서정원 은사님 내외분 초청 모임



지난해 말, 경산지부 김정섭, 박재규, 이준영(64회) 동문은 서정원 은사님 내외를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옛 추억담을 나누었다. 오랜만에 은사님을 뵈 동문들은 먼저 큰 절을 올리며 은사님을 맞이했고, 이에 서정원 은사님 또한 덕담을 건네었다. 이날 자리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되었다.

■송년의 밤 개최



2010년 12월 28일 박호환(54회) 회장을 비롯한 동문 및 동문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계성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문들은 서로의 우애를 확인하고 새로운 해를 동문들과 함께 맞이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년회 발대식



지난 1월 27일 경산계성동문회 청년회 발대식을 갖고 이날 한영건(59회)

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총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경산지부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화합을 위한 자리로 참석한 동문 전원은 2011년 경산지부와 청년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포항지부

■동문가족 송년의 밤 개최



2010년 12월 14일 목화웨딩홀에서 '모교 개교 104주년 기념 2010년도 재포계성 동문가족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김현호(43회/대동고교장/재포동문회 고문) 원로 동문을 비롯해 이종학(45회/이종학산부인과 원장) 고문, 정제일(58회) 회장 등 17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정제일 회장의 장녀인 정희수(울산시립교향악단) 양을 비롯한 현악 4중주의 아름다운 선율과 이종관(75회 경북예술고 음악부장) 동문의 독창, 김영재(74회 신세계 약국 대표) 총무의 클라리넷 독주로 격조높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 동문 모두 흡족한 시간을 보냈다.

■회장단 신년교례회 개최



지난 2월 22일 19시, 대이동 소재 미조리 일식집에서 '2011년도 재포계성동문회 회장단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이성형(54회) 고문, 김찬호(55회) 고문, 정제일 회장과 포항으로 전임된 강성주(58회) 포항MBC 사장, 김기현(72회) 포항지청 부장 검사 등 26명이 참석하여 재포계성동문회의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교류에 대하여 진지하고 뜻있는 토의를 가졌다.

해외동문회소식

LA 동문회

■신년하례식 및 김재현 교장 환영식



지난 1월 17일 LA중심가 올림픽 만리장성에서 ‘미국 LA계성동문회 2011년 신년하례식 및 본교 김재현 고등학교장 LA방문 환영식’이 열렸다. 1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박충기(53회) 목사의 예배 인도에 이어 권태운(50회) 신임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권 회장은 “약해져가는 동문의 규합과 한국 총동문과의 보다 많은 대화 정보 채널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2011년 활동계획을 보고했다. 엄진섭(38회) 부이사장과 조용직(41회) 상인고문의 축사가 있는 후 본국에서 방문한 김재현(59회) 교장이 축사 및 모교 소식과 근황을 동문들에게 알렸다. LA동문들은 김 동문을 통해 모교의 발전하는 모습을 듣고 흐뭇해하였고, 교가제창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골프모임

지난 2월 27일 LA근교 Lakewood Country Golf Club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남성철(63회) 회장은 6월 10일에 있을 중앙일보 사장배 골프대회를 앞두고, 계성동문의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프모임을 가져왔다.

뉴욕 동문회

■새해모임

지난 1월 28일(금) 18:30, Flushing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구정모임을 가졌다. 부부동반으로 많은 동문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모교소식과 그간 동문들의 안부, 그리고 한국 동문회에서 온 소식지를 전달하였다. 성대하게 이루어진 이날 행사를 통해 동문들은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동문간의 우의를 나누었다.

남가주 동문회

■골프 대회



지난 2월 27일(일) 2011년 첫 골프 토너먼트를 레이크우드 컨츄리 클럽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너먼트는 미주 중앙일보 동문회 골프대회(6월 2일)에 출전할 선수 선발을 겸하여서 더욱 활기찼다. 이날 챔피언은 박하규(51회) 동문에게 돌아갔고, 메달리스트 정태현(63회) 동문, 장타상에 이태영(62회) 동문, 근접상에 정태현(63회)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시카고 동문회

■디너모임 개최



지난 2월 27일 오후5시, MC-TV공개홀에서 시카고 동문회 디너모임을 가졌다. 이날 부부동반으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손대곤(60회), 박창호(60회), 이효섭(61회) 트리오 중창단의 7080 메들리 연주로 흥을 돋우었고, 이어 경과보고와 회계보고가 있는 후 새 회장단 선출 건에서 김왕기(59회) 회장, 손대곤(60회) 부회장, 이효섭(61회) 총무가 전임 위임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가수 서수남씨가 참석해 동문 노래자랑 심사와 축하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더욱 돋우어주었다. 9시경 모든 행사를 마친 동문들은 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옛 생각



도 창 회 (43회) 동문
시인, 수필가
전 동국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한국문인협회 고문
계성총동창회 고문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 때 그 푸르렀던 시절은
순전히 바람투성이이었습니다
허기진 뱃속에 싸한 겨울바람
퍼담고 퍼내는 일로
해가지고 날이 밝았습니다

세월의 등골을
작신작신 밟으며
찬 바람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어도
그래도 그 때는
배움의 꿈이 있어 좋았습니다

쓰린 아픔은 차라리
행복한 고독이었습니다
배움의 열병이
목숨 지키는 일 보다 더 진했던 것을
계성을 모교로 한 사람은
모를 이 없습니다

군동내 나는 남색교복 입고
대신동 큰 장가
먼지 날리던 신작로
계성학교 다니던 그 때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어린 나이로
푸르렀던 시절의 그 바람투성이 의미를
몰랐다손 치더라도
바람을 퍼마시고 퍼내는 일이
고희의 나이에도 계속될 줄이야
어찌알겠습니까

타향살이 고되게 살면서
느닷없이 넘어오는 옛생각에
뿌연게 두 눈에 고인 눈물
거치른 주먹으로 떼었습니다.

계성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계성동창회보의 주기적인 발간과 각 동문교류 확대를 위하여 동문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작은 소식이라도 큰 힘이 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각 기별/지역별/직능별/직장별/동아리/소모임 등 소식(행사, 체육대회, 야유회, 세미나 등)
- 개인별 소식(영전, 승진, 결혼, 부음, 개업 등)
- 전문가기고, 시, 수필, 칼럼, 모교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한 제안, 기타 게재를 원하는 내용
- 필수내용 : 이름, 졸업회수, 연락처, 소식내용(사진첨부 요망)

※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기고와 칼럼을 게재해 주실 동문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회보 자료 접수처 ■

- ▶ 우편 : 700-720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총동창회 사무실
- ▶ E-mail : keisung@keisung.or.kr

47회 재경 동창 칠순잔치

함께했어서 좋다! '우리'라서 행복하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10년 10월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47회 동기생들의 칠순잔치를 개최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인연의 끈을 비로소 오늘, 함께 맞이하게 되어 더없이 기쁜 날. 감동으로 넘실거렸던 오늘의 행복이 영원하길 바란다.



칠순을 맞이한 재경47회 동문들은 2010년 10월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110여명의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부부동반으로 칠순잔치를 개최하였다. 오랜 벗으로 함께했던 시간만큼이나 친숙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생의 지취를 되새기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 자리에는 외국에서 온 동문들도 많이 참석하여 정말 반갑고 좋았다.

행사에 참석한 전규용 대구회장 부부도 “영원한 계성의 스포츠맨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낼시다”는 축사를 해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 행사를 전적으로 후원하고 자리를 마련한 마상곤 동문(협운해운 회장)부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또한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삼 박사(최무훈 동문자부)의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다. 재경 47회 칠순잔치가 만들어낸 고귀한 인생의 울림이 계성고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다시금 아름다운 울림으로 다시 피어나길 기대한다.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실제 나이에서 20살을 빼고 계산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임은 칠순이 아니라 오순잔치가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오십대의 팔팔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더욱 왕성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자.

47회 재경 동창회 회장 김 중 학



古稀 기념여행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여행



47회 동창회 회장 전규용

일상을 벗어나 古稀年을 기념하며 떠난 여행을 회상하니 긴 여정에 건강을 해친 동기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다들 안녕하신지요?

이번 여행은 팔미도가 아니어도 행복했을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이외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마저 풍요로운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도 함께 하였으니 마음 먹기에 따라 우리 생애 최고의 여행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특별히 古稀는 우리의 삶에 里程碑가 되어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에게까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투정하는 삶은 반드시 망한다는 강감찬 장군의 말이 있습니다. 이번 칠순 여행을 통하여 동문들이 말없이 협조하며 서로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47회 동문답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생활화하면 복은 저절로 굴러들어 올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배려하며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이 살아가면 모두가 반기며 고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욕심 많은 사람이 얼마나 추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건강을 보살피며 끝까지 청춘으로 멋지게 살아갑시다. 팔미도 등대, 인천대교, 차이나타운, 수덕사까지 함께 했던 그 길 위에 '목로주집'의 노래까지 있었으니 그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까?

훗날 喜壽年에도 그대들과 꼭 다시 한 번 거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먼 여행길 동행해준 동문들과 사모님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동문들, 함께하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함께해준 모든 우리 계성고등학교 47회 동문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庚寅年을 보내고 희망찬 辛卯年에 우리 사랑하는 대구 계성고등학교 47회 동문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하시는 사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문이 똬다!

김창환(42회) 동문, 대한민국헌정회 운영위원회 의장 재선출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양정규)는 2월 18일 2011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장에 김창환(8, 9대 국회의원) 위원을 재선출했다.

헌정회 운영위원회는 제2대~제17대 국회의원회에서 각2명씩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곽홍탁(51회) 동문, 보건학 박사학위 취득



지난 2월 곽홍탁 동문은 『신축학교 교실 실내공기 중 유해유기물질 농도와 초등학생들의 신경행동기능』에 관한 연구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곽 동문은 1983년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공학 석사학위(논문: 동절기 낙동강의 자정효과)를 취득하였으며, ‘수중식물을 이용한 도시하수의 수질개선’의 논문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1995년 환경분야의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역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예방적이며, 또한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는 학자들의 선행연구에 의하여 다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01년에 환경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한바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그는 이번에 『신축학교 교실 실내공기질 농도와 학생들의 신경행동기능』에 관한 연구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현재 곽 동문은 2008년 2월 36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현재는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환경부 환경교육 홍보단 강사, 대구시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근암환경장학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백운이(55회) 동문, 경북대병원장 취임



신임 백운이 경북대병원장 취임식이 4월 20일 열렸다. 백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 거듭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진료·교육·연구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며, 병원 내부의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 병원장은 진료와 관련, “지난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우리 병원을 믿고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며 “지역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확립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병원의 진료 및 교육, 연구에 대해서는 “우수 의료요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특화된 진료 분야를 개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임상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의학연구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병원장은 “올 초 칠곡경북대병원을 개원했고, 내년에는 어린이 병원, 2015년쯤에는 임상실험동이 개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 아래 병원들의 위상과 기능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준(56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2011 AAAS 심포지엄 참석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은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AAAS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동 심포지엄은 ‘국경 없는 과학기술(Science Without Borders)’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계의 세계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와 과학기술 섹션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동아시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한중일 3개국 4개 기관장 및 연구원 및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재윤(56회) 동문, 민통협의회 의장 재선출



민족통일협의회 이재윤 의장이 지난 3월 24일 건설화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또 다시 재선출 됐다. 전국 대의원 378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이재윤 의장은 지난 4년의 임기동안 국고보조금 부활, 민통사업의 다변

화, 화관건설기금 조성 등 민통 발전의 업적을 인정하여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았다. 이 의장은 향후 4년의 임기동안 민족통일의 역할 결집과 통일준비 및 통일봉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민족통일협의회는 30년 전에 창립된 가장 큰 통일단체로 전국 시·군·구에 조직을 둔 6만 여명의 회원을 둔 유일한 민간통일기구이다.

한기환(59회) 동문, 제28대 계명대 동산병원장 취임



한기환 동문이 지난 3월 1일 계명대 동산병원장으로 취임했다. 한 병원장은 1978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경북대의학박사, 미국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 소아병원 객원교수, 대만 장궁기념병원 소아병원 객원교수, 계명의대 성형외과학과

실 주임교수 겸 동산병원 성형외과장, 동산의료원 의학과 도서관장, 경주동산병원장,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성형외과학회 영호남지역학회 이사장,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장을 맡고 있다.

박정찬(60회) 동문, 연합뉴스 사장에 선임



보도전문채널 승인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는 15일 창립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대표이사에 박정찬(57) 연합뉴스 사장을 선임했다. 박 동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총에서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의 탄탄한 취재망과 막강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대한민국 언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뉴스채널을 기약하고 있는 연합뉴스TV를 통해 대한민국도 아시아 뉴스허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되는 박 동문은 33년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몸담으며 워싱턴특파원, 편집국장, 미디어 담당 특임이사, 관훈클럽 총무 등을 거쳤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보유한 국내 최대 취재인력과 전 세계 46개 지역 62명의 해외 특파원망을 활용, 국제화 시대의 감각과 수준에 맞는 글로벌 멀티미디어 뉴스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아시아 대표 뉴스허브, 한 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뉴스채널로 도약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토리텔링 방식의 뉴스 포맷 개발과 함께 시민기자, 시민PD, 시민VJ로 꾸려지는 미디어 프런티어 제도를 신설, 생활밀착형 기사를 발굴하고 정규 편성함으로써 뉴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에도 도전한다.

이창욱(60회) 대구조달청장, 2010년 조달청 부서평가에서 최우수상



대구지방조달청(청장 이창욱)은 조달청의 2010년 부서평가 결과, 지방청 중 가장 일을 잘한 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부서평가는 조달청 53개 부서를 대상으로 조달사업 조기집행, 국가 경제정책 지원,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약자기업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대구지방조달청은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창욱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2011년에는 조직의 역량을 기술우수 및 녹색제품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념을 갖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윤 석 용 (58회) 국회의원



끈질기게 달라붙은 '장애'라는 편견을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며 그 관심과 사랑을 사회로 돌려주겠다는 신념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모두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윤석용 의원을 만났다.

'장애인'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됐다. 소아마비를 처음 앓았을 때는 목 밑까지 마비되어, 입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현재처럼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 정도로 된 건, 가족 덕분이었다. 어머니와 외가는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고, 아버지 또한 늘 자전거에 나를 싣고 학교를 오가신 애정 깊은 분이셨다.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어린 시절 장애를 입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나를 자신들과 같은 아이들로 여겼고, 몸이 아픈 나를 등하교 길에 업어 주면서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선생님들도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나를 업어서 화장실에 보내 주었다. 이런 주변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학창시절 12년 동안 하루도 학교를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결코 비장애인들과 같을 수 없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처음으로 차별을 경험했다. 당시 대구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경북중이나 사대부중으로 진학했는데 나는 성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았다. 기독교 학교인 계성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성에 차지 않았다. 계성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공부에는 손을 놓고, 책과 사색에 빠져 살았다.

대학 입시를 치른 후, 경북대와 연세대 공대에 지원했지만 두 학교 모두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했다. 어머니는 한의사는 몸이 불편해도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의대 입학 시험을 보자'고 제안했다. 1971년 경희대 한의대 입학 시험을 치렀다. 필기시험은 통과했지만 신체검사에서 탈락했

다. 그 외에 다른 장애인 수험생 10여 명도 있었는데, 모두 탈락했다.

신체검사에서 떨어지자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던 외삼촌이 자신과 친했던 실력자 육인수 전 공화당 의원에게 입학 을 부탁했다. 육인수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빠로,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었다. 육인수씨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정을 이야기 했고, 박 대통령은 경희대 측에 입학 허가를 지시했다. 경희대 한의학과와 첫 장애인 학생 입학이었다.

인권운동가로서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 공부는 제치고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후배들을 이끌고 테모하다 경찰서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 조사관들이 '너는 이 새끼야, 각하의 은혜를 입은 놈이 왜 유신을 반대하는 거냐'면서 많이 혼났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반감이 많았다. 새마을 운동도 정권연장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경부고속도로는 턱도 없는 소리였고, 포항제철·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는 전부 재벌들 배 불리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서를 전전하던 1975년 동료 수십 명과 함께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다. 학교에서 제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친은 그 날로 자리에 누웠다. 아버지까지 병져 늙자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고 고향인 대구에 내려와서 타일 판매업을 시작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1980년 서울의 봄이 오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1981년 졸업 후 한의학 공부를 계속하다가

천호동에 한의원을 열었다.

당시 천호동은 서울에서 가장 못살던 동네였다. 무허가 판자촌, 재래시장, 사창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뒤덮여 있던 곳으로 돈이 없어서 병원 진료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를 해주기로 결심했다. 이때를 계기로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빈민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무료진료를 하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바로 나와 같은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은 빈민가운데 빈민이었고, 한국에서 살지만 우리 국민이 아니었다. 특히 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목욕이었다.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없어 냄새가 나니 사람들에게 무시 받고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갔다.

'이 땅의 장애인들에게 목욕만큼은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1985년부터 이동 목욕차량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직접 일본·미국·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동 목욕차량 기술을 배웠다. 가장 어려운 기술은 목욕차량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 자동으로 물을 데워 주는 기술이었는데 한국 기술자들을 외국에 보내 이 기술을 배워 오게 했다. 그리고 1992년 국내 최초로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을 제작 공급했다.

1983년에는 강동사회복지개발원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장애인어린이를 위한 통합어린이집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한의사로서 한의대학원을 전공하지 않고, 탁아·보육에 대한 과정을 전공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에 뛰어들고 보니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디 선악 구별이 뚜렷한 터라 정치인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선 복지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회에 뛰어들었다.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장애인으로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맞선을 38번 보는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결혼하자'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아내를 보고는 '운명이다' 싶었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도 버거워 한번 만나고 프로포즈를 했다.

아내는 항상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선거활동 중 장애인이 나타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고, 아침에 가면 '재수없다'며 소금뿌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도 아내는 지역구민의 어려운 점을 경청했고 구두에 구멍이 날 정도로 열심이었다. 또 아내는 장애인 후보로서의 어려운 점에 대해 연설하기도 했는데, 그 얘기가 신문에 난 후 전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총선 당선자 만찬에서 아내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했는데 영부인 김윤옥 여사 등

많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려 만찬장이 눈물바다가 됐다.

장애인으로서 선거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도 많이 받았다. 제17대 총선 때는 병역기피를 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나는 2급 장애인으로 병역이 면제됐는데 후보자 소개에는 '병역 미필'로 나와 있었다. 여성은 병역면제라고 나와 있어서 오해가 없지만, 병역 미필자로 나와 마치 병역을 일부러 회피한 사람 처럼 되어버렸다. 지난 17대 총선 때, 1300여 표 차로 떨어졌는데 부재자 투표에서 1,000여 표 차이가 났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매일 50만원씩 과태료를 지불하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와 배우자, 보좌관 1명 등 3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수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한쪽으로 지팡이를 짚어야 해 실제 명함을 나눠주는 인원은 2명이었다. 그래서 선거운동원이 내 대신 명함을 돌리는데, 위법이라고 계속 고발당했다. 매일 고발당하고 매일 과태료 50만원씩 물어야 해 하루하루가 초상집이었다.

'장애'의 편견을 넘어서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직 등을 수행하면서 장애인체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문제에 있어 장애인체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인에게 체육은 '사회참여와 완전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또한 재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체육이다. 체육은 삶의 활력을 찾아 주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장애인체육을 통해 전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이루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에 도전했고,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많은 장애인체육인들의 지지를 받아 지난 2009년 11월에 회장에 당선되었다.

장애를 갖고 살아오면서 평생 가족과 주위의 사랑만 받고 살아왔다. 비록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살며 종종 한계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 이면에는 넘치게 받은 주변의 사랑과 관심을 사회로 돌려줘야겠다는 신념이 있었다. 비록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눔으로 행복해 하는 아이들을 보면 더욱 더 사명감을 높아진다.

빈민을 위해 시작한 무료진료부터 목욕차량 제작, 사회복지법인 운영, 국회의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얻기까지 평범한 두뇌로 매순간 남들보다 두 배의 고민을 해왔다.

빈민,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건강을 가져다주고 사회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후원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체육이 국가를 빛낼 수 있는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이 아름답다.”

박 은 수 (62회) 국회의원

장애는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다. 불편한 몸으로 사회적 편견의 한계를 넘어 판사를 거쳐 변호사, 그리고 이제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박은수 국회의원. 그가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태어나신 지역과 성장과정 및 변호사 활동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1956년 가을 대구에서 태어나 생후 10개월만에 소아마비로 하지 장애를 겪게 되었지요. 대구중앙초등학교와 계성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 심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탈락되자 사법부의 부당한 처사를 언론에 호소했고 마침내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에 힘입어 1983년 대구 지방 법원 판사로써 법조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이후 대구와 마산 지방 법원에서 5년 5개월 간의 판사 생활을 거쳐 1988년 대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1991년 대구 볼런티어센터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장애인 전용 버스 운행, 장애인 카풀 운동을 펼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에는 대구 지방 변호사회 홍보이사로 재직했고 1994년에는 '노인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대구 시민단체 협의회'(노장지협)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음 총선과 대

선을 준비하고, 손학규 대표의 일정을 돕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변호사로서 장애인 운동에 적극 참여해오다가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직을 4년 간 수행하고, 제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며, 우리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라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었던 것이 계기라면 계기겠지요.

국회의원으로서 고충과 보람이 있다면?

MB정부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열악한 마인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장애인 권익 확대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입법을 성사 시켰을 때는 국회의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8,000명이 넘는 장애인이 공직으로 진출하여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향상시킨 일이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도 맞춤형훈련으로 장애인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 사례, 장애인도 초등학교의 자랑스러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



평을 연 일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모교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몸이 불편한 저로서는 50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동기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알찬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동기들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곤 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모교 은사님이 계신가요?

중3때 담임이셨던 안인환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서우셨지만 때로는 관대하셨고, 저를 많이 신경써주셨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처와 아들 딸, 1남1녀를 두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시는지? 또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나면 독서와 음악 감상을 즐깁니다. 또 작문을 좋아해서 부족하지만 글을 쓰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요가와 명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05주년 역사의 모교에 대한 바램은?

학교공부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폭 넓은 자유와 서클활동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명과 활동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려하고 양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때,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더 시야를 넓혀 그 동안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권익까지도 세세한 부분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유도계의 히딩크’라 불리는 사나이

안 병 근 (68회) 용인대학교 교수



1984년 LA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1985년 서울세계선수권대회,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남자 71kg급 재패하며 ‘유도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안병근 선수. 지금은 유도 지도자로서 ‘유도계의 히딩크’라 불리며 국가대표선수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온 용인대학교 안병근 교수를 만났다.

태어나신 지역과 성장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1962년 2월 23일 대구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가 생후 10개월 무렵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누님이 2분 계셨는데 큰누님이 고2 때 중퇴하고 집안 살림과 저를 키웠습니다. 아버님이 간장 공장을 운영하셔서 비교적 형편이 괜찮았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공장이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되며 집안이 급격히 기울어 셋방살이를 하게 되며 많은 형제들이 학업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용인대학 무도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유도국가대표코치와 감독을 10여 년간 역임하고 용인대 유도훈련단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중학교에 입학할 하며 유도정규수업에 유도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없이 유도가 좋았고, 마침 형님의 권유로 유도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경기에서 장은경 교수가 은메달을 따는 경기를 보면서 국가대표 선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수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학 4학년 재학시절 1984년 L.A올림픽에서 한국유도의 올림픽 첫 금메달을 획득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지시로 두류공원내에 안병근 올림픽제패기념 유도관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선수에서 이제는 지도자로서 보람과 고충이 있다면?

평생 유도를 했고 유도로 인해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모교인 용인대에서 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행복을 느낍니다. 선수시절에는 금메달을 땀을 때 나 한명의 기쁨으로만 생각했는데 지도자가 되고 보니 부모의 심정입니다. 내가 지도한 제자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 후 좋은 진로로 이어질 때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반대로 열심히 노력한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모교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50계단을 뛰며 유도선수의 꿈을 키웠고, 동기 및 선후배가 어우러진 정겨웠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모교 은사님이 계신가요?

재학시절 마동철 선생님의 유도에 대한 열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항상 저에게 “너는 열심히 해서 용인대에 가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고 하시던 은사님이셨는데, 간경화로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우리들과 항상 새벽부터 함께 땀 흘리시고 유도를 지도 해주시던 이영종 선생님의 열성적 지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고교시절 국가대표선발에서 입상도 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시며, 종교관은 무엇입니까?

아내 장금희와 대학생인 큰딸 서진, 고등학생인 둘째딸 유진이, 막내 준성이가 있습니다. 막내가 금년에 보성중학교 2학년으로 유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종교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주일날 마동철 선생님의 인도로 계성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도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닙니다.

지도자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시간이 날 때는 어떤 취미를 즐기시나요? 또 평소 건강관리 비결이 있다면?

주위의 권유로 골프를 하려했으나 별 취미를 느끼지 못했고, 늦게 바둑을 배워 시간이 나면 바둑을 즐기고는 합니다. 또 아직까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유도복을 입고 학생들과 유도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05주년 역사의 모교에 대한 바램은?

계성고등학교를 다니며 나 자신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졸업 후에는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훌륭한 동문들이 많이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모교인 계성고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인재배출의 요람이 되길 기원합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명과 활동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유도회 이사와 대한유도회 심판분과위원 및 국제심판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체육회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아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심판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교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교시절 은사이신 마동철 선생님께서부터 만화책이라도 좋으니 책을 많이 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운동을 하며 사실 학과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책과 답을 쌓다시피 하였습니다.

삼국지라던가 고전 역사책 종류는 비교적 읽기가 쉽고 재미있으며 유익한 내용이 담긴 책이 많으니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모교소식

선배와의 대화



2010년 4월 3일, 52회 졸업생이자 재경 계성총동창회 회장인 윤동한 동문(한국콜마 대표이사)을 초청하여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약 60분 동안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회사 경영 방법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등을 강의하였다.

1학년 봄소풍



1학년 1학기 소풍이 달성군에 있는 비슬산에서 실시되었다. 비슬산은 팔공산과 함께 우리 학교 교가에 나오는 명산으로, 이 행사를 통해 애교심을 고취하고 체력과 호연지기를 길러 학업 정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최초 시행되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하여 대견사 터를 거쳐 전망대와 조화봉을 오르는 코스로서 등반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산행이었지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정상 정복의 쾌감을 맛보았다.

2, 4주 전일제 동아리 활동



자율형 전환 이후 실시된 특별교육 프로그램인 2, 4주 전일제 동아리 활동이 지난 4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교과 관련 동아리 20여개와 취미·적성 관련 동아리 20여 개가 개설되어 모든 학생은 2, 4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내 혹은 교외의 특정 장소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과학의 달’ 기념 명사 초청 강연회



2010년 4월 17일,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의 달’ 기념 명사 초청 강연회가 본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교 73회 졸업생인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를 초빙하여 ‘넓은 세상’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이 진행되었다.

청소년 트레킹 과정 실시



2010년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본교 1학년 학생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도 운문산 청소년 야영장에서 실시되었다. 인공 암장 등반 훈련, 운문산 트레킹, 야간 적응 훈련 등의 과정을 통해 체력을 연마하고, 자신감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학년 단체 활동



2010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서 본교 1학년 학생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단체 활동을 실시하였다.

해양 수련활동이 주를 이루어 래프팅 활동, 수상 안전 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그 외 예절 교육과 선택활동으로 두드리, 종합댄스, 모듬북, 음악줄넘기 등의 활동도 있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해양 축제의 밤이 있었으며 이 시간에는 포항지역 동문회에서도 참석하여 모교 사랑의 뜻 깊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응급처치법 과정 이수



2010년 8월 2일부터 3일 양일간 1학년 학생 68명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응급처치법 과정을 이수하였다.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타인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

꽃동네 봉사활동



2010년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1학년 학생 전원이 꽃동네 봉사활동의 기회를 가졌다. 희생과 봉사의 참된 뜻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010 학년도 제1회 계성 영어말하기 경시대회



2010년 11월 20일 토요일 2, 3교시에 대강당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계성 영어말하기 경시대회가

개최되었다.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3명, 장려상 5명을 시상하였다.

세례식 및 성찬식



2010년 12월 8일 9시 30분, 2학년 석주훈 외 93명의 학생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가졌다. 교실에는

성찬식과 세례식 실황이 라이브로 중계되었으며, 계성교회 박이득 목사, 동산교회 박영찬 목사, 문화교회 담임 목사 이재범(68회)가 함께 집례하였다.

1학년 해외 어학연수



1학년 해외 어학연수가 미국, 호주, 필리핀(마닐라, 세부)에서 3주 동안 실시되었다. 미국 49명, 호주 23명, 마

닐라 47명, 세부 58명이 어학연수 기관의 기숙사와 홈스테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학연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독서캠프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5박6일간 1학년 학생 53명이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서 독서캠프의 기회를 가졌다. 독서캠프는 계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가 의무적으로 1회씩은 참가해야 하는 특별프로그램이다. 독서 강의를 통해서 독서 방법, 독후감 쓰기 등을 배웠으며, 「정의란 무엇인가?」를 토론서로 지정하여 독서 후 토론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주의 목월 동리 문학관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다.

2011 학년도 신입생 예비학교 특별프로그램



2011년 1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1학년 학생 347명이 2011학년도 신입생 예비학교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예비학교는 청소년의 꿈 찾기 프로그램, 명사 초청 특강(계명대 의대 환기환 교수 (59회)), 학과 선정 검사, 유형별 학습 진단 검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학교 역사, 독서 안내, 학습 방법 안내, 필독서 특강, 논리학 강좌, 글쓰기 특강, 국, 영, 수, 사, 과의 교과강의 및 영어소설, 수학선행학습 등의 다양한 강좌들로 채워졌다.

해외 자매학교 교류

중국 상하이 차오양 중학교 방문



2010년 5월 24일
에서 5월 28일까지
4박 5일 동안 본교
학생 35명은 중국

자매학교인 상하이 차오양 중학교를 방문하였다. 홈스테이와 학교 참관 및 문화 탐방 등을 실시하였다.

히로시마 죠호쿠 중학 · 고등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2010년 10월 15일
9시 30분, 본교 대
강당에서 일본 히로
시마 죠호쿠중학 ·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양교 재단 이사장과 학교장이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학생, 교사들의 상호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히로시마 죠호쿠 중학 · 고등학교 방문



2011년 2월 22일
부터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본교 학생
16명은 일본 자매학

교인 히로시마 죠호쿠중학 · 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해외 자매학교 교류 현황

| 교류국가 | 도시명 | 자매학교명 | 자매학교 체결일 |
|------|------|---------------|---------------|
| 중 국 | 상하이 | 차오양중학교 | 2003년 2월 24일 |
| 호 주 | 고스포드 | 세인트 필립스 기독교학교 | 2006년 10월 13일 |
| 일 본 | 히로시마 | 죠호쿠중학 · 고등학교 | 2010년 10월 15일 |
| 중 국 | 천진 | 진화국제중 · 고등학교 | 2010년 12월 14일 |
| 미 국 | 조지아 | 실로힐즈 기독교학교 | 2011년 1월 11일 |

2010학년도 주요 수상 실적

- ≫ 유도 : 홍콩 오픈 국제유도대회 1위 (권재덕(3학년))
- ≫ 농구 : 2010 연맹회장기 전국중고농구대회 준우승
제어회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 ≫ 상하이 국제청소년과학기술엑스포
- ≫ 『Excellent Display』상, 『Good Work in the On-The-spot』상 수상, 최우수 논문 상(성지현(1학년)), 문석준, 김동규, 윤상수, 이유정, 권도현 등 6명 우수 논문 상 수상.

- ≫ 교사포럼 최우수 논문상(남정환(73회)교사)
- ≫ 2011년 한국학생창의력올림픽 대회 동상2개팀, 장려상 2개팀
- ≫ 2011년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 장려상 수상 (성지현(1학년))



상하이 국제청소년과학기술엑스포



한국학생창의력올림픽 대회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

동문기고

너희의 찾는 길 에 있다

박 용 규 (44회) 영남일보 논설고문



소통의 광장

신문 체제이던 동창회보가 책 체제로 판형을 바꾸었습니다. 잘 한 일입니다.

신문체제일 때는 보관이 어렵고, 무엇보다 원고계재 양이 적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체제가 바뀌었으니 보관하기도 좋고, 게재 원고가 많아 동문들의 소통광장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체도 그러하지만 특히 동창회는 구성원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잘 될 때 그 동창회는 더욱 굳게 뭉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성동창회가 어느 학교 동창회보다 더 잘 뭉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해 왔습니다만 회보 체제 변화를 계기로 더욱 하나 되고 역동성 있는 동창회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로 뭉치기 어렵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도 힘듭니다. 소통이 부족하면 뭉치기 어려운 것을 지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갈수록 증폭되는 갈등 문제가 우리의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보·혁 간, 빈부 간, 노사 간, 학력 간 등 많은 갈등이 국민을 사분오열시키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연구 발표 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우리사회의 갈등지수는 0.71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고 했습니다.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이익집단 간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여 경제 발전의 중요한 장애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고 우리사회의 사회 갈등 지수를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44로 낮추면 일인당 국민 소득이 27%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27%를 우리나라 연간 국민총생산량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300조원이 됩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보고서였기에 계성동창회 회원 간의 소통이 더욱 원만해 질 계기를 맞아 떠올랐습니다.

샘이 깊은 물

체제 변화를 계기로 동창회보가 그야말로 계성 문화의 못

자리가 되고 계성정신의 샘이 깊은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는 글로 만들어졌고, 전해왔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은 사람의 정신이고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새 동창회보에 실리는 글들이 동창간의 소통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정신을 보다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값진 것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계성학교의 창학 정신은 여호와 경외와 개척정신, 자유정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는 교훈은 참 지식이 무엇이고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응축하고 있습니다.

계성학교를 세운 초대 선교사들은 개척정신이 왕성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그들은 나라 잃은 청소년들의 가슴에 개척정신과 자유정신을 심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온갖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절대자를 경외하고 개척정신, 자유정신으로 무장한 계성의 졸업생들은 우리 사회의 정신과 문화를 앞장서 이끄는 향도였습니다.

문학의 윤복진, 김동리, 박목월, 김성도, 김동사, 박동규, 음악의 현제명, 박태준, 김만복, 임성길, 미술의 서동진, 주경, 손일봉, 정점식, 김우조, 백태호, 추연근, 변종하, 김창락, 박해동 등이 계성 졸업생이거나 계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한글을 갈고 닦은 이운재, 한국 신연극의 새벽을 연 홍해성, 영화의 새 경지를 개척한 이규환 등 계성인은 우리나라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도 10단 신도환은 계성학교를 나와 오랫동안 모교에서 교편을 잡은 계성 체육의 증인이고 정치, 경제, 학계, 의료계, 언론, 법조,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계성인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계성학교는 샘이 깊은 물이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새 동창회보가 6만여 동문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통해 동창회보를 읽게 될 많은 분들에게 교가의 '어둠에 서서 방황하는 자 너희의 찾는 길 에 있다'는 확신에 찬 정로를 제시하는 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한경쟁(無限競爭)

최 태 조 (48회 · 목장회 회장) 목사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일꾼 길러내는
하나님의 명문고를 위해 기도와 감사가
무한 경쟁적으로 일어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유한(有限)한 세상에서 무한경쟁은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게 공급하셔도 영원토록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한하게 받아가져도 그 이상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무한 속에서의 무한 경쟁에는 다툼과 시기와 갈등, 좌절과 연민,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 소망과 협조, 격려와 믿음, 사랑이 넘쳐남이 지극히 정상적이라 하겠습니까.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잊은 인간들로서는 무한경쟁의 개념은 유한 속에서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싸움 그 자체일 뿐입니다. 이러한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고의 틀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한한 공급자인 하나님을 비라고 믿고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찾은 사람은 이제 감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는 유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며 또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한히 끝없이 공급해

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공급하기도 하십니다만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 공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 능력과 축복, 사랑과 믿음, 소망과 위로, 물질까지라도 모두 받아 무한히 공급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사용될 사람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 자사고였던 계성학교의 기능개발을 위하여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제야 그 설립 취지를 마음껏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관을 거친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세계를 향한 무한 공급자의 하나님의 일꾼 배출을 위해 우리도 작은 무한 공급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일꾼 길러내는 하나님의 명문고를 위해 기도와 감사가 무한 경쟁적으로 일어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무한경쟁을 위한 자사고 허락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 2011. 3. 9 기도실에서

계성학교 총동창회를 추억하며

박 연 탁 (50회) 감사



내가 총동창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1년, 그러니까 <50회 동기회장>을 맡고나서 1년이 지난 다음 해였다. 당시 신도환 회장은 사무장이던 권수보 선생이 연세도 많고 하니 회무를 잘 도와주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나를 '박내 부회장'을 맡게 하였고, 그로부터 다년간 동창회의 회무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부회장으로, 장학재단이사로, 또 감사로 동창회에 적은 힘이나 보태고 있는 셈이다.

생각나는 일은 동창회의 사무장 호칭을 사무국장으로 바꾼 일, 권수보 선생과 함께 <동창회 회원명부> 발간을 측면에서 도운 일, 기별 친선체육대회에서 지금처럼 동창회가족체육대회로 확대 발전하게 한 일 등에 내가 관여한 일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동창회는 사무실도 하나 없는 상태로 모교 서무실에 책상 하나로 지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계성빌딩 3층에 비로소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게 하였고, 내가 필요한 집기를 몇 개 기증했던 일도 기억난다.

특히 동창회를 생각할 때마다 신도환 회장을 잊을 수가 없다. 잘 알려진 대로 신도환 회장은 모교 사랑이 누구보다 극진했다. 계성을 자랑하고 사랑했다. 아무리 국정으로 시간을 낼 틈이 없더라도 모교나 동창회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치고 그 전날 내려와서 안건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계성학교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는 말을 어디에서나 했다.

평소 신도환 선생의 생활중심에는 모가 나지 않고 둥글고 원만한, 그래서 <圓>을 닮으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당시 한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를 느끼고서부터 매사에 모가 나지 않는 원만한 삶을 사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격을 도야함에 있어서도 원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계에서 은퇴하여 야인의 삶을 살면서도 항시 약자의 편에서는 정의파이기도 했다. 검소한 생활도 몸에 베어 있었다. 사무실의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하라는 말도 자주했다. 후덕한 성품 때문인지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다.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사모님에 대한 사랑은 극진했다. 사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직접 간병을 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가 되었다.

신도환 회장 재임 당시 회장단은 <29회>란 별도의 친목모임을 가졌는데, 그 실무책임을 내가 맡았다. 그것은 모임 날짜가 매월 29일이기도 했고 또 신도환 선생이 29회이기도 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이 친목 모임은 신도환 회장이 회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 가지 아쉬움은 동창회의 단독 회관을 건립해야지 않겠느냐는 말이 그 당시 있었으나 말로만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신도환 회장은 동창회의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동창회를 생각하면 같이 동고동락했던 권수보 선생도 잊을 수가 없다. 권수보 선생과 함께 전국의 유력 동문을 찾아다니면서 동창회를 활성화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우기도 했고, 사무실에서 예산 결산, 회무정리, 의제 관계로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도 했다. 신도환 선생의 경우는 물론이지만 동문이 국회 등에 출마했을 때는 함께 전국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도 했다.

권수보 선생의 영웅담도 떠오른다. 모교 교사로 재직시절, 한번은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쓰러뜨려 만났는데 그 순간 권수보 선생은 그 ‘두 놈’을 잡고 바짝 들어 올려서는 운전수에게 “문 열어!” 소리쳤고 버스가 멈추고 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버스 문밖으로 던졌다는 이야기 등, 아사는 너무 많다. 권수보 선생과의 인연은 내 선친과 권수보 선생의 어른이 곡물업계에 같이 종사한 적이 있기도 해서 더욱 그렇다.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은 1981년, 동창회가 모교 개교 75주년 기념 사업으로 체육, 음악, 미술, 문학 등을 기획하고 분야별로 담당 부회장을 정했는데 체육에는 한준우(31회), 음악에는 석남수(35회), 미술에는 김홍근(40회) 부회장이, 그리고 문학에는 내가 실무 부회장을 맡게 되었다. 나는 당시 모교 교사로 근무 중인 이수남 동문과 함께 <계성문학>을 창간하는 일을 맡아 재정적인 후원을 함께 하기도 했다. <계성의 맥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축사를 싣기도 했지만 그 후로도 꾸준히 제작비 등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왔다.

2001년 11월, 아리아나호텔에서 계성문학 창간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을 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성문학>이 고유한 체재와 내용으로 향토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드물게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일에 내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흐뭇하면서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뿐 아니다. 모교 문예반인 근일점문학동인회의 작품집 <근일점문학> 창간에도 후원하는 등 문학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돌이켜보면 1981년도 당시에는 부회장이 6명이었지만 지금은 60명 가깝게 확대 발전되었다. 이것은 104년 계성의 동창회 모습이기도 하다.

끝으로 계성인 교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존을 믿고 기대하며 이 글을 그친다.

계성, 계성, 만만세.....



계성 3대 우리 가족 이야기

강 윤 구 (51회) 동문

앞에 컸는 것 비술산이요 뒤에는 팔공산 돌렀다
푸른 언덕에 계성학교는 반공에 우뚝이 솟았네
계성 계성 만세라 우리계성 만만세
햇빛과 같은 너의 광채를 세상에 비취라
영원무궁 비취라 우리의 자랑인 계성아

지금도 교가를 부르면 가슴이 뭉클하다.

나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계성중학교에 입학하여 1964년 계명대학 교육과에 입학하기까지 6년간 계성동산 뜰을 밟고 다녔다. 중학교 1학년 때 김문조 선생님, 2학년 때 김세현 선생님, 3학년 때 곽대남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영수 선생님, 2학년 때 서용택 선생님, 3학년 때 윤근필 선생님을 담임선생님으로 모셨다.

서용택 선생님은 후에 인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고, 예영수 선생님은 한신대 교수로 계시다가 장로회 신학대학의 후배가 되셨다. 학교에 다닐 때는 뭘 모르고 그냥 다녔는데 6년간 유도 시간을 통해 무게중심이 엉덩이에 있던 내가 가슴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잘하진 못했지만 그 때 권수보 선생님, 안광록 선생님, 금동진 선생님을 만났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김상영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연구실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씨름을 배웠다. 공부를 잘한 기억은 없지만 고2, 고3 때는 씨름선수로 생활했던 기억은 생생하다. 그 때 같이 씨름을 했던 친구 중에는 이미 고인이 된 친구도 있다. 민속씨름이 출발할 때 김상영 선생님께서 처음 심판 위원장을 하였고, 미국 시카고에 사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후에 민속씨름 협회 총재를 지낸 엄삼탁 선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농인 고등학교 3학년으로 경기장에서 만난 적이 있다.

내가 계성가족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은 27회 졸업생이신 아버님(강 석자 교사)께서 90회 생신을 맞아 대구에 가서 가족을 만났을 때이다. 목장회 얘기를 하다가 동창회장님과 얘기를 나누시다가 우리집안 얘기를 써보라고 하셔서 이 글을 쓰게 됐다.

나의 조부께서는 7회 졸업생이신 강신창 목사님이셨다. 아버님은 27회 졸업생으로 올해 90회 생신을 지나셨고, 우리는 육남 맏였는데 형(강성구)은 49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했다. 계성졸업생 중 3대가 졸업생을 낸 1호 가정이 되어서 형이 졸업할 때 할 아버지, 아버지, 형 3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우리 교단(예장통합) 총회 50주년 화보집에 실려 있다. 형은 영남전문대 교수로 은퇴했고, 내가 51회, 내 동생(강현구)이 57회(영남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 막내 동생은 중학교 진학할 무렵에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배정을 했기에 안타깝게 동문이 되지 못했다. 여동생 둘은 모두 성명여중, 신명여고를 졸업했다.

나의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 아버님께서는 대구서남교회에 60여년 가깝게 다니시면서 원로장로가 되셨고, 할아버지의 신앙의 전수가 아버님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할아버지는 원대교회에서 17년간 목회를 하셨고, 경북노회 공로목사님이 되셨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에 원광교회를 개척하셔서 논바닥에 천막을 치고 시작하셨던 때에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교회는 후에 노곡교회와 합해서 노원교회가 된 걸로 알고

있다.

그 때 우리 집은 현재 태왕스카이라파트가 선 자리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그 집에서 나도 20여년을 살면서 계성동산의 사랑을 입었다.

내가 계명대학 4학년 때 폐결핵에 걸려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권유로 장로회신학대학에 입학할 했지만 3개월 후 휴교가 되어서 그 때부터 만 3년을 쉬면서 지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하다가 요한복음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는 이 말씀에 부딪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이 말씀은 내 평생의 소중한 말씀으로 간직되어 있다.

그 후 3년을 더 교육청에 무시험 입학추첨 업무를 보다가 각혈을 해서 죽는 줄 알았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각혈은 멈췄다. 후에 기도로 결단을 하고 아버님과 계성동기이신 이성행 박사님께 수술을 받아 오른쪽 상엽절제를 했다. 다시 6년 만에 장로회 신학대학에 재입학을 했다.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체육대회가 있으면 계성동산에서 배운 씨름이 한몫을 했다.

재경동문 체육대회가 있어서 참석하면 꼭 씨름을 하게 됐고, 43회 졸업생이신 서정은 전 장신대 총장께서는 해설을 하면서 목사가 사람을 매어친다고 놀리기도 하셨던 기억이 있다.

서울안동교회 부목사, 새문안교회 부목사를 거쳐 경주제일교회에 담임목사로 있을 때는 대화동기 장로님이 나를 강호동의 형님이라고 놀려서 듣는 사람들은 사실로 오해할 정도였다.

지금은 군포시에 있는 산본교회(통합)에 온지 16년째인데 내가 대구에 계속 살았다더라면 나의 두 아들도 계성가족이 되게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평준화와 무시험입학제도와 사학법 때문에 이전 맘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되었다.

나에게는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는데 큰 아들은 고려대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복수전공 후 장신대 99기가 되어서 서울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 목회지도를 잘 받고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를 거쳐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은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다.

작은 아들은 고려대 전자정보, 산업정보 복수전공 후 장신대 104기로 졸업을 하고, 서울영락교회의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고, 자부역시 104기 동기로 현재는 딸 하나를 키우는 주부로 있다.

딸은 사위가 장신대 100기로 지금 평촌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남매를 두고 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자녀에 대해서 쓰는 것은 할아버지께서 시골서 예수 믿고, 고생하시면서 대구 오셔서 계성동산에서 공부하고 다진 신앙의 뿌리가 있었기에 또, 아버님의 계성의 줄기가 있었기에 어머니의 기도와 아울러 오늘 우리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에 계성의 자부심을 느끼며 계성가족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화합과 단결로 새 시대를 !

백 경 진 (53회 · 총동창회 부회장) 동문



이제는 팔로우적 리더십과 리더적 팔로우십이 함께 필요한 때

lead는 '이끌다'입니다. follow는 '따르다'입니다. 그러므로 leader는 '이끄는 사람' 즉 '지도자'이고, follower는 '따르는 사람' 즉 추종자입니다.

과거에는 흔히 리더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홍수나 기름 같은 천재지변으로 존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지도자를 처단한 고대사회는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이 지구를 지배하는 21세기를 살면서도 역사의 주체를 지도자로 믿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쉽게 줄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의 주체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정의한 정통 역사서를 교실과 도서관에서 충분히 배웠으면서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도자에게만 의지하고 책임을 묻는 데 익숙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팔로어에 대한 새롭고 창조적인 인식이 점차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지도자의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는 자세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리더십이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권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리더십과 팔로우십 모두가 같이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온전한 결합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새 시대적 가치관을 대중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계성은, 다른 어느 학교도 가지지 못한 팔로우적 리더십으로 100년이 넘는 전통의 역사를 누려 왔습니다. 당당한 리더로서 대구경북 지역에 신문명 신교육의 횃불을 지켜든 것도 계성이

였지만, 교장과 학생이 지하 인쇄실에서 함께 일하고, 교사와 학생이 나란히 어깨를 걸고 3.1운동에 동참하는 등의 팔로우적 교풍은 결코 남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선진적 장관이었습니다.

선후배 여러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학교의 교풍은 봉건적 잔재를 떨쳐내지 못한 채 수직적 권위주의적 면모에 머물렀지만, 우리는 문화적 종교적 예술적 학교문화 속에서 즐기치게 발전해 왔습니다. 선후배 사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경하고 아껴주고 예를 다하는 신사적 토양이었습니다. 절대 폭력적 획일적 구태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제 105년 계성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하자면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발현해야 할 때입니다. 총동창회 및 기별 동교회, 지역별 동창회는 물론 동호회 등 각종 동문회 일에 앞장선 간부들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선후배들을 깎듯이 모시는 팔로우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회원 동문들은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간부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리더적 팔로우십을 적극 발휘해야 할 전환기입니다. 그리하여 전통과 부활의 꽃이 한꺼번에 만개할 수 있도록 마음과 땀과 피를 결집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도약기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따뜻하게 화합하고, 굳건하게 단결하고, 그리고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음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에 전통의 위력과 부흥의 활기를 불어 넣읍시다. 누구 할 것 없이 다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50계단 고목들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뽕뽕 노래소리를 쏟아내는 이 봄, 모교와 동창회에도 빛나는 꽃이 가득 피어나도록 뭉칩시다!

감사합니다.



‘영남권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박 광 길 (55회) 동문

진짜 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일 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현실인데 뭐 그리 꼭 신공항을 건설해야 하나라고 가볍게 물리칠 수도 있다. 잠시의 불편을 감수하면 되지 않는냐는 얘기다. 물론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비용도 수도권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든다. 이것도 인정하고, 아니 무시하더라도 100분의 1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문만이 아니다.

정작 필요성은 경제적인 이유에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제 지역의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이다. 기업의 물류비용이다. 영남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시간과 운송비용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지역의 기업이 성장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자연히 서울근교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대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하려고 해도 측은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善인이라 차갑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의 비즈니스를 위해 시간을 다투면서 뛰어 야 하는 기업이나 해외에서 오시는 바이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연히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지역의 경제는 가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주장하는 “국제관문 공항은 그 스스로 산업과 경제적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은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더욱이 국내의 미래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10년 내에 밀려오는, 그것도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는 중국과 인도의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차원에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왜 하필 밀양(하남평야)을 주장하나?

우리 대구경북지역에도 적절한 후보지가 있다. 영천 금호평야처럼! 그러나 4년여 전에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모여 다 같이 편익을 공유하는 위치를 정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대국가적인 면에서 관문공항을 보아야 하기에 가장 중요한 ‘접근성’을 고려해 밀양으로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돌연 허남식 부산시장 이 현재의 김해공항이 부산관내에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반기를 들었고, 그만 불행한 사태로까지 몰고 온 것이다. 관문공항의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지 지역의 여느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상식 밖의 의심이 들 정도였다. 물론 밀양도 산을 깎아야 하는 단점은 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토목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이다. 원래 공항은 내륙에 건설하고 내륙에 적절한 입지가 없을 때 해안 그것도 외해가 아닌 내해를 고려하는 것이다. 자연재난에도 상당한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가덕도 앞바다는 참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

어떤 규모의 신공항을 말하는가?

부산은 인천공항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규모를 주장하는 허브

공항을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의 일부의 몰이해하는 인사들은 실패한 또는 정치적인 지방공항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4개 시도에서 주장하는 신공항은 다르다. 인천공항은 아시아의 허브(환승적 효과를 내는)공항으로 계속가야 한다. 인천공항과 국내에서 허브를 경쟁해서는 둘 다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1등급 공항이고 김포와 제주공항이 2등급이고 지방공항이 3등급이라면 1.5등급 정도의 공항을 주장해 왔다. 인천공항과 상생, 보완, 비상시 대체하면서 제2의 국제관문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다는 논리에서이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대처하려고 한다.

어찌피 이 정부에서는 신공항추진은 안 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2년여라는 시간이 있다. 하기에 따라서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다.

먼저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부산의 주장은 시간이 가면 부산시민들도 이해가 갈 것이다. 눈으로 보는 자연재난의 실태와 밀양평야로 간다 해도 부산이 오히려 가장 편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비할 것이다. 각계각층의 접촉과, 이해를 공감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좁혀 나갈 것이다.

수도권의 ‘전국 2시간 생활권’이란 허구성도 차분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2시간이면 전국을 오갈 수 있다는 것이지 지방에서 지방을 2시간에 오간다는 것은 어렵었다는 것부터 인식시키면서 지방의 몰이해를 타파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일부 오해 즉 3등급의 지방공항과 동일시하는 오해도 타파해야 한다. 따라서 “영남권통합신공항” 건설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적자인 공항의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하자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강구해서 제안할 것이다. 즉 ‘통합신공항’ 건설비용을 약 10조원에서 5조여 원으로 낮출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과 기법을 국제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마련해놓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공항의 수요자와 고객인 국내외 항공사와 긴밀히 접촉하여 단기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밖에 제대로 기획된 올바른 계획을 우리 지역민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나가려고 한다. 물론 정치인들이나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포퓰리즘은 국가 정책 추진에 암적인 존재를 남길 수가 있어 경계를 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영남권통합신공항’은 우리 ‘영남인’이 앞장서고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가장 간절한 바람이다. 영남인의 긍지를 가지고서!

올해는 대구 방문의 해, 모교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



김 봉 갑 (61회) 동문

‘2011 대구 방문의 해’라는 표어를 대구 시내에서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구 시민들은 올해를 대구 방문의 해라고 정한 것이 대구시청인 줄 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니까 그 홍보책의 하나로 시청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2011 대구 방문의 해’ 지정은 중앙정부가 한 것이다. (해마다 그렇게 하나의 시도를 지정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시민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만큼 대구시청이 ‘2011 대구 방문의 해’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뜻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올해 대구를 찾아올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기도 한다. 아직도 외국인들은 ‘대구’ 하면 섬유도시(17.8%), 사과(17.2%), 보수성(15.9%), 닭고기(12.3%)를 주로 떠올리고, 방문 명소로는 팔공산을 겨우 6.4% 연상하는 실정이니 이래서야 어찌 ‘2011 대구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자못 걱정스럽다.

대구에는 이상화, 현진건 등 항일적 이미지를 갖춘 문화적 유산이 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의 성지이므로 민족적 민주적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할 만한 정신사적 유산도 있다. 그러나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북경성 못지않게 아름다웠다는 대구읍성이 구한말 친일파 박중양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된 것이 그 상징이지만, 현대사의 한 부분인 2.28기념탑 역시 역사의 현장인 명덕로터리에 남아 있지 못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두류공원으로 옮겨진 뒤 빛을 잃었다. 상화고택 또한 주위의 변잡한 빌딩들 때문에 초라한 면모로 추락했고, 국채보상운동의

위대함을 알아볼 수 있는 역사유적이나 기념관도 없다. 우리 대구는 눈앞의 ‘개발’에만 몰두하는 철학적 역사관을 뛰어넘어 유장한 정신적 흐름을 현실에 되살릴 줄 아는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 계성, 105년 역사를 자랑하는 모교는 대구의 자랑 가운데 한 가지이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서양식 2층 건물을 보유한 것도 물론이지만, 서양문물의 전파를 통한 대구경북 지방의 현대화에 밑거름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우리 계성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3.1운동 역시 우리 계성 선배들이 그 중심이었다.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 문화 발전의 중심축도 계성이었다.

‘2011 대구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고색창연한 모교의 교사들과 50계단을 널리 홍보하자. 그리고 스스로도 한번, 개인적으로 모교를 방문해 보자.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런 발걸음이 모이면 자사고 시대라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야말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계성 동문 각자 각자가 50계단을 걸으며 총동창회와 모교를 사랑하는 애뜻한 마음을 새로이 한번 드리낸다면, 앞에서 총동창회를 이끌어가는 간부들도 동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2011 대구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이전 신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모교의 발전은 아마도 명약관화할 것이다. 105년을 함께 살아온 계성 동문들이 서로 돕고 아끼고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어찌 모교 중흥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지 않겠는가! 올해가 바로 그 때이다.

대구 국제마라톤을 마치고...

서관호 (63회) 동문

깜짝 놀라 눈을 뜨니 6시 20분이다. 74명의 계성 달림이와 그 가족 합해서 적어도 100명 이상의 동문과 그 가족들이 참석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니 무엇이 빠졌는지 등 여러 가지 걱정으로 간밤에 잠을 못 이루었다. 4시 30분 넘어서 잠깐 눈을 붙인 것 같다. 게다가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내심 보스턴 자격증을 탐낸 탓도 있으리라. 그래서 긴장 한 것인가?

사실 내년이 안식년이고 결혼 30주년이라 옆 지기와 세제 4대 메이저 대회인 보스턴, 뉴욕, 베를린, 런던 마라톤을 갈려고 약속을 했는데 보스턴은 자격증을 따라만 참석하는 대회이다. 4년 전 경주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26분으로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기간 만료로 다시 따라한다. 물론 그동안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탓에 3시간 39분 59초만 하면 자격증 준다. 그런데 이 기록이 한창 때 같으면 웃기는 애긴데 최근 2년간은 늘 4시간에 맞추어 뛰었으니... 3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훈련을 좀 했는데 그 이후 해외 출장 스케줄로 제대로 훈련을 못 한 것 같다.

바쁘게 찰밥 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대회장으로 직행했다. 동호회 총무를 맡은 관계로 동호회 참가자들에게 이것저것 나누어 주었다. 총동창회 김정길 사무처장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해주시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와 계신다. 우리 계성마라톤회의 정신적 우상이신 53회 한기식 고문님(70회 생신에 사하라 마라톤 완주를 희망하시는 치과의사) 부부도 나와 계시고 이미 100회 완주를 넘어서신 54회 윤창기 고문님도 나와 계신다. 57회 고동현 회장님과 58회 이상곤 수석 부회장님도 와계신다. 모두들 열정이 대단하

신 분들이다.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준비물이 부족한 관계로 칠성시장 가서 물건 좀 더 사고 오니 풀코스 선수들은 벌써 출발하였다. 급하게 나도 출발한다.

시정에서 출발하다 보니 도로변에 사람들이 꽤 많다. 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초반 오버페이스 하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천천히 천천히...

MBC 4거리를 지나 범어 로타리를 꺾어서 남부 정류장, 지옥의 담뱃 고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겨우 8K 났을 뿐이다. 문제는 돌아 올 때 다시 담뱃고개를 넘을 일이 걱정이 다. 지금까지는 5분 30초 정도 페이스로 잘 뛰고 있다. 맨 늦게 출발 하다 보니 계속 앞 사람을 추월하며 뛴다. 이 재미도 괜찮네...ㅋㅋㅋ

연호네거리를 지나니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는 오르막길이 다시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다.

신매네거리를 지나 드디어 첫 번째 반환점인 경산의 길목 구 제일합섬 자리.

다시 대구 쪽으로 U-turn.

이제 11K 났었다. 약 1/4 났는데 시계는 59분을 났 것으로 나온다. 자, 몸은 풀었으니 지금 부터는 조금 속도를 올려 본다. 월드컵 경기장을 돌아 범안 삼거리를 지나는데 앗! 마라톤 계의 미모의 소유자 부산 사하마라톤 소속의 이모 선수가 보인다. 따라 붙는다. 역시 예쁜 사람과 같이 뛰면 힘이 덜 더는 것 같다. 이런 저런 얘기 나누며 같이 율하역을 향한다. 율하역에서 다시 U-turn.

이제 20K를 났 건가? 다시 연호네거리 쪽으로 달린다. 그래 뽕뽕 돌러라. 기꺼이 돌아가리라. 드디어 27K 지점에



서 다시 담티고개를 만난다. 마지막 고비다. 이 지점에서 퍼지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내리막이고, 더욱이 대구 시내의 아파트 단지를 달리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것이고 저절로 달려 나가게 되리라.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옆지기를 생각하며 고통을 즐긴다. 남부 정류장을 지나 범어네거리에서 30K 지점을 알리는 팻말 그랜드 호텔이다. 정확히 2시간 32분이 지나고 있다. 앞으로 12K 남았다. 5분 40초로만 계속 뛰면 3시간 40분 안에 들어 갈 수 있다. 이상하게 컨디션이 매우 좋다. 사실 요 며칠 몸이 매우 가볍다. 얼마전 출장 중 네팔의 평양 식당에서 먹은 단고기 탕인가? 어린이 화관 앞에서 누군가 ‘서관호 파이팅’ 이라고 외친다. 고등학교 동기이다. 전혀 생각지 못 한 것인데 감사의 손 인사만 하고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계속 뛰어 간다. 사실 대구국제마라톤 대회가 우리 고등학교 체육대회 마라톤 종목 채점 대회인 관계로 우리 동문이 오늘 70여명이 된다. 일단 내가 현재 1위란다. 물론 우리 동문들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니까 순서를 알겠지. 하지만 내가 알기로 서브-3주지만 4명 참가 했는데 내가 1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가볍게 손 인사 하고 계속 뛰어나간다.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 내 이름을 달고 고등학교 기수를 달고 대구의 아파트 단지를 달려가고 있으니 어딘가에서 내가 알던(한때 또는 지금) 그 누군가가(남자 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그 누군가가 달려가는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저거는 아직도 저지랄 하나?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간은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 어쨌거나 건강하게 잘 늙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황금호텔을 지나가는 데 ‘계성 파이팅’을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동문 또는 동문 가족이겠지. 그런데 지금 까지 달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성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데 남자보다는 확실히 여자의 수가 많다. 언제부터 계성이 여자고등학교이었는가? 계성 100년이 만들어낸 기적인가?

수성못이다. 우회전, 잠시 대학 시절로 달려간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계성고 동문회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해 주던

추억의 장소 수성 못 서울식당, 그날 거의 죽음이 되어서 집에 돌아간 기억이 있다.

호반휴게소 앞을 지나간다. 대학교 입학하여 신명여고 출신들과 첫 보트 미팅을 하였던 곳. 그 때 파트너 이름이 독특하여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한다. 하하하. 그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는 동안 다리가 무거워 진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아슬아슬 할 것 같아서 괴롭지만 그냥 뛰어 간다.

수성네거리 마의 37K 지점을 지나고 있다. 코스 절묘하게 해놓았다. 딱 퍼지려는 시점에 시내를 관통한다.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다. 반월당을 지나 옛 고려예식장 자리에서 다시 한 번 U-turn.

다시 반월당에서 중앙로로 꺾으니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데이터를 하다가 나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나도 저 시절에는 오늘 같은 일요일에는 어김없이 시내를 배회하며 젊음의 광기를 분출하였던 것 같다. 내가 오늘 이 길을 뛰어 갈 줄 누가 알았겠나?

중앙네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한일 극장을 지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으로.

끝!

시계는 3시간 34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다시 보스톤 자격증을 따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끝인 하고 나니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오늘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걱정된다. 사실 내가 달리는 중에도 수 없이 많은 앰블란스가 지나갔는데 그중에 혹시?

다행히 갑자기 일이 생겨 참가를 못한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사히 완주를 하셨다. 풀코스가 되었던 10K가 되었던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계성가족 모두 즐겁게 한 마음으로 어울렸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회는 단체 완주상이 있는 관계로 10K, 풀코스 모두 완주 상을 받은 것 같다.

(계성마라톤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월드컵 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모여 같이 달립니다. 동문 여러분 누구나 환영하니 많이 와 주십시오. 직립 보행 동물은 달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관절이 튼튼해지며 치매가 없습니다.)

종소리

모교 교사 김 한 수

내가 어렸던 시절 나의 고향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논두렁, 밭두렁 사이 길로 흙냄새 나는 아낙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 이윽고 깊은 산자락에서부터 푸른빛 어둠이 내려왔다. 생솔가지 태우는 저녁연기가 산골을 메우면, 시나브로 모든 그림자가 어둠 속에 잠겼다.

백년도 못사는 인생살이에 얼굴 붉히며 씹고 씹히던 인간 세상의 말장난도 초당방의 호롱불이 꺼지면서 잠들었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적막강산 같은 저 세상인데 도대체 산다는 게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서로가 용서할 수 없었던가!

어둠이 더할수록 밤하늘의 별빛은 더욱 초롱초롱 빛났다. 별은 별을 향해 눈짓하며 밤을 지새우고, 땅 위에는 하얀 밤이슬이 야생초가 오순도순 모여 사는 길센마다 성수 마냥 내렸다. 앞집 개가 짖으면 뒷집 개도 따라 짖고, 뒷동산 술술의 부엉이는 무엇이 그렇게도 서러운지 밤새워 울어댔다. 부산 발 청량리 행 밤 열차가 길손들의 애환을 싣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북쪽으로 향했다. 지금은 초로의 할머니가 되어버린 순이도 그 옛날 뒷집 총각과 눈이 맞아 함께 손잡고 서울로 도망쳤던 청량리 행 완행열차!

텅 빈 철길 따라 밤바람처럼 열차가 지나가면, 자식을 기다리는 홀어머니의 슬픔은 다시 한이 되어, 메마른 눈물샘을 지났다.

누구 집에선가 첫닭이 울고, 이집 저집의 닭들도 새벽잠에서 깨어나, 경쟁이나 하듯이 끼끄러운 소리로 울어대었다. 희뿌연게 퇴색해버린 새벽 별빛사이로 삼태성 별자리가 서쪽 하늘가에 겨우 걸려 있을 무렵, 교회당의 종소리가 새벽을 열었다. 이 마을의 종소리와 저 마을의 종소리가 멀리서 가까이에서 서로 다른 음향으로 들렸다.

“뎡그랑, 뎡그랑”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은 “뎡그랑, 뎡그랑”이 아니고 “천당, 천당”이라고 했던가, 그윽음 진 남포등에 불이 켜지고,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몇 명의 신도가 움츠리고 앉아서 잠꼬대하듯 새벽기도를 올렸다. 이 때쯤이면 사랑방에도 다시 불이 켜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침소리에 큰 머슴도 잠에서 깨었다. 외양간의 황소는 풍경소리를 내며 다시 되새김질하고, 부지런한 일꾼들은 농기구를 챙겼다. 교회당의 새벽 종소리는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마을을 깨우고, 온 세상을 깨웠다. 허기졌던 그 시절에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고 외쳤던 위정자도 스스로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모두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라고 노래지었다. 고향의 새날은 이렇게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새벽 종소리는 새날의 환희요, 희망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빛을 던져 주었다. 종소리에 삼라만상은 깨어나 삶의 율동을 시작했다. 새벽 종소리는 새날의 시그널이요, 희망의 메시지였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수성 방천길을 따라 육 년이나 걸어서 통학을 했다. 누구에게나 학창시절의 추억이 변색된 흑백 사진 위에 담겨져 있겠지만, 나에게 수성 방천에 대한 추억은 종소리와 함께 더욱 선명하다. 학교를 마치고 황혼녘에 방천길을 걷노라면, 저 너머 대봉 성당의 저녁 종소리가 “뎡그랑, 뎡그랑”하고 금빛 노을 속에서 들렸다.

저물어가는 도시의 황혼, 그리고 저녁 종소리!

그것은 우리들에게 낭만이었고, 사랑이었고, 안식이었다. 그래서 종소리 들려오는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이는 사랑의 열병에 찢겨진 상처를 치유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삶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바바리코트의 깃을 세웠다.

간간이 행인들만 오고 가던 한적한 길 따라 무정한 세월만 오고 갔다. 그리고 무상한 세월에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옛날의 것이라고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추억에는 생생히 살아 있는 그날의 종소리가 현실에는 어디에도 없다.

저녁 종소리가 없는 밀레의 그림을 생각해보자. 삭막하고 황량한 가을 별판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만들겠는가?

저 멀리 교회당의 종각에서, 저녁놀 따라 들려오는 듯한 은은한 종소리가 있기에, 그 그림은 불후의 명작이 된 것이 아닐까?

삭막한 도시 생활 때문에 굳게 잠겨 버린 내 마음의 빗장을, 사그러지다 남은 동심이 살며시 열어 젖히면, 내 마음은 육신 몰래 이 도시를 빠져 나가서 종소리가 울리던 옛 고향 마을의 들판을 향한다. 거기에는 언제나 푸근한 인정과 여유가 있다. 그러나 지난날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주었던 교회당의 종소리만은 아무리 고향을 찾아가도, 혹은 그 도시의 그 길을 걸어보아도 들을 수가 없다. 교회당의 첩탑은 옛날보다 더욱 높이 솟아 하늘 가까이 갔지만 거기서부터 온 세상으로 울려 퍼지던 종소리는 어느 하늘가로 사라져 버렸는가!

성탄절이 가까울 무렵, 첫눈까지 내리고 그날따라 교회당의 종소리가 은은히 울리던 그 낭만적 분위기를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눈이 오는데
종이 우는데
아!
여기는 성 니콜라이 사원 가까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멋지게 표현한 낭만적 시구가 아닌가? 하나님의 축복 마냥 온 세상에는 흰 눈이 내리는데, 저녁 미사를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눈송이 따라 허송에 흩날린다. 시인은 이 순간의 서정을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었기에 그저 “아!” 라는 감탄사만 쓰고야 말았다.

한 때는 교회마다 종소리 대신 화성기를 사용해서 종악을 틀어 놓은 적도 있었다. 아무리 아름다운 종악이라 할지라도 어찌 종소리에 비교할 수 있으랴. 그러나 그 종악마저도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소음으로 들렸고, 그래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은 종소리도 사라지고 종악도 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던 멋과 여유와 낭만마저 사라진 시대이다. 나는 병어리가 되어버린 교회당의 종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본다. 어느 세월에 다시 한 번 끝없는 창공을 향해서, 호곡하고 싶은 울음을 터뜨리듯이 소리 낼 날이 있을까?

가을이야기

모교 교사 한 학 동 (64회)

고개를 들자
우루루 쏟아져 다시 사방으로 튕기는
햇살들
그 햇살에 두 눈 찢리고
나는 눈멀고 말았습니다.

뽀뽀스럽게
참으로 뽀뽀스럽게
가만히 손 내밀어 보지만
거부하는 몸짓으로 상승하는 아지랑이들
저희끼리만 체온 나누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 돌아오는 길
산은 온통 한 가지 색
나보다 먼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총동창회 61대 회장단



회 장
이병구(53)



이 사
유윤철(52)



부회장
김선영(53)



부회장
박정호(53)



부회장
백경진(53)



부회장
서주영(53)



부회장
신재학(53)



부회장
김신길(54)



부회장
한명로(54)



부회장
오유인(55)



부회장
이재윤(56)



부회장
황기철(56)



부회장
양보식(57)



부회장
김상준(58)



부회장
김상태(58)



부회장
윤석용(58)



부회장
유명재(59)



부회장
이 순(59)



부회장
이인기(59)



부회장
이종복(59)



부회장
박상태(60)



부회장
임병헌(60)



부회장
한재권(60)



부회장
신현철(61)



부회장
나주영(62)



부회장
박은수(62)



부회장
성제경(62)



부회장
이현희(62)



부회장
장동현(62)



부회장
김동익(63)



부회장
이영목(63)



부회장
이한성(63)



부회장
최병현(63)



부회장
김병호(64)



부회장
손병갑(64)



부회장
구자일(65)



부회장
이승화(65)



부회장
현경병(68)



부회장
김우철(70)



부회장
김형곤(70)



부회장
양승재(71)



부회장
김종혁(72)



부회장
박재흥(72)



부회장
서석호(74)



부회장
이신일(76)



부회장
김기성(80)



감 사
박연탁(50)



감 사
이진복(69)



사무처장
김정길(56)



편집주간
정만진(61)



편집위원
한학동(64)

재단법인 계성장학회



이사장
박성대(38)



고 문
신성택(45)



당연직이사
이병구(53)



이 사
김용태(41)



이 사
조준제(47)



이 사
김문순(49)



이 사
박연탁(50)



이 사
유윤철(52)



이 사
이재윤(56)



이 사
김상태(58)



감 사
손중배(64)



감 사
이진복(69)



사무처장
김정길(56)

기별 · 지부별 · 동호회임원명단

총동창회 기별회장단

| 기수 | 직책 | 성명 |
|-----|-----|-------|
| 27회 | 회 장 | 강 석 교 |
| 29회 | 회 장 | 김 세 현 |
| 30회 | 회 장 | 임 성 준 |
| 31회 | 회 장 | 서 복 섭 |
| | 총 무 | 이 주 국 |
| 32회 | 회 장 | 최 찬 식 |
| 33회 | 회 장 | 김 수 영 |
| 34회 | 회 장 | 이 규 성 |
| 35회 | 회 장 | 김 재 성 |
| 36회 | 회 장 | 이 종 록 |
| | 총 무 | 김 경 창 |
| 37회 | 회 장 | 이 상 우 |
| | 총 무 | 정 의 승 |
| 38회 | 회 장 | 이 원 석 |
| | 총 무 | 나 영 택 |
| 39회 | 회 장 | 장 기 홍 |
| 40회 | 회 장 | 최 보 형 |
| | 총 무 | 박 중 렬 |
| 41회 | 회 장 | 윤 병 태 |
| | 총 무 | 손 덕 영 |
| 42회 | 회 장 | 양 상 묵 |
| | 총 무 | 오 택 환 |
| 43회 | 회 장 | 최 성 곤 |
| | 총 무 | 이 예 구 |
| | 재 무 | 오 한 익 |
| 44회 | 회 장 | 도 재 복 |
| | 총 무 | 김 재 양 |
| 45회 | 회 장 | 정 총 영 |
| | 총 무 | 황 보 홍 |
| 46회 | 회 장 | 도 재 진 |
| 47회 | 회 장 | 전 규 용 |
| | 총 무 | 한 홍 열 |
| 48회 | 회 장 | 강 영 덕 |
| | 총 무 | 손 성 구 |
| 49회 | 회 장 | 설 춘 수 |
| | 총 무 | 임 병 용 |
| 50회 | 회 장 | 김 기 원 |
| | 총 무 | 최 중 원 |

| 기수 | 직책 | 성명 |
|-----|-----|-------|
| 51회 | 회 장 | 이 인 구 |
| | 총 무 | 낙 기 진 |
| 52회 | 회 장 | 김 일 헌 |
| | 총 무 | 김 시 우 |
| 53회 | 회 장 | 정 갑 동 |
| | 총 무 | 배 중 규 |
| 54회 | 회 장 | 이 창 동 |
| | 총 무 | 최 정 태 |
| | 총 무 | 김 기 룡 |
| | 총 무 | 우 진 권 |
| 55회 | 회 장 | 서 대 열 |
| | 총 무 | 박 수 향 |
| 56회 | 회 장 | 낙 시 탁 |
| | 총 무 | 최 돈 문 |
| 57회 | 회 장 | 김 정 위 |
| | 총 무 | 정 병 수 |
| 58회 | 회 장 | 이 국 희 |
| | 총 무 | 이 승 현 |
| | 총 무 | 김 병 국 |
| 59회 | 회 장 | 엄 희 복 |
| | 총 무 | 홍 진 중 |
| 60회 | 회 장 | 이 인 직 |
| | 총 무 | 성 백 관 |
| | 총 무 | 진 동 현 |
| 61회 | 회 장 | 이 창 재 |
| | 총 무 | 배 영 호 |
| | 재 무 | 최 치 식 |
| 62회 | 회 장 | 박 태 환 |
| | 총 무 | 구 철 교 |
| | 재 무 | 김 영 호 |
| 63회 | 회 장 | 석 찬 영 |
| | 총 무 | 황 규 재 |
| 64회 | 회 장 | 이 상 갑 |
| | 총 무 | 구 본 선 |
| | 총 무 | 장 선 건 |
| 65회 | 회 장 | 홍 종 욱 |
| | 총 무 | 김 진 김 |
| 66회 | 회 장 | 김 종 욱 |

| 기수 | 직책 | 성명 |
|-----|-----|-------|
| 66회 | 총 무 | 김 홍 철 |
| | 총 무 | 조 성 원 |
| 67회 | 회 장 | 이 재 면 |
| | 총 무 | 이 일 수 |
| 68회 | 회 장 | 강 호 철 |
| | 총 무 | 최 진 태 |
| | 총 무 | 정 영 표 |
| 69회 | 회 장 | 안 재 갑 |
| | 총 무 | 김 원 조 |
| | 총 무 | |
| 70회 | 회 장 | 김 진 혁 |
| | 총 무 | 서 태 호 |
| 71회 | 회 장 | 심 상 국 |
| | 총 무 | 노 규 영 |
| | 총 무 | 김 상 균 |
| | 재 무 | 신 택 진 |
| 72회 | 회 장 | 김 기 환 |
| | 총 무 | 이 동 엽 |
| | 재 무 | 박 기 상 |
| 73회 | 회 장 | 장 성 필 |
| | 총 무 | 정 희 원 |
| 74회 | 회 장 | 이 용 수 |
| | 총 무 | 권 보 준 |
| 75회 | 회 장 | 석 수 겸 |
| | 총 무 | 민 현 기 |
| 76회 | 회 장 | 이 상 홍 |
| | 총 무 | 낙 준 호 |
| 77회 | 회 장 | 한 동 원 |
| | 총 무 | 박 상 현 |
| | 총 무 | 이 재 창 |
| 78회 | 회 장 | 김 원 규 |
| | 총 무 | 유 환 윤 |
| 79회 | 회 장 | 류 재 춘 |
| | 총 무 | 신 홍 범 |
| 80회 | 회 장 | 김 기 성 |
| | 총 무 | 김 승 주 |

기별 · 지부별 · 동호회임원명단

2011년도 지부별 임원 명단

| 지 부 | 직 책 | 성 명 | 회 수 |
|-----|-------|-------|-----|
| 서 울 | 회 장 | 윤 동 한 | 52 |
| | 사무국장 | 정 성 문 | 67 |
| 부 산 | 회 장 | 남 인 우 | 53 |
| | 총 무 | 홍 연 호 | 63 |
| 인 천 | 회 장 | 홍 재 욱 | 56 |
| | 총 무 | 김 진 곤 | 69 |
| 대 전 | 회 장 | 유 형 재 | 61 |
| | 총 무 | 박 기 석 | 63 |
| | 부 총 무 | 손 세 호 | 67 |
| 울 산 | 회 장 | 허 정 | 56 |
| | 총 무 | 최 광 로 | 63 |
| 수 원 | 회 장 | 윤 성 태 | 55 |
| | 총 무 | 신 태 철 | 59 |
| | 총 무 | 채 석 영 | 80 |
| 창 원 | 회 장 | 이 준 성 | 57 |
| | 총 무 | 류 지 하 | 60 |
| 진 주 | 회 장 | 조 명 제 | 58 |
| | 총 무 | 김 병 구 | 67 |
| 경 산 | 회 장 | 박 호 완 | 54 |
| | 총 무 | 이 준 영 | 64 |
| 경 주 | 회 장 | 백 승 인 | 59 |
| | 부 회 장 | 박 재 동 | 60 |
| | 총 무 | 이 종 태 | 67 |
| 구 미 | 회 장 | 장 영 석 | 65 |
| | 총 무 | 김 윤 석 | 69 |
| 김 천 | 회 장 | 전 완 | 65 |
| | 총 무 | 황 상 태 | 70 |
| 문 경 | 회 장 | 조 선 찬 | 61 |
| | 총 무 | 노 병 년 | 67 |
| 상 주 | 회 장 | 김 수 진 | 61 |
| | 부 회 장 | 손 성 락 | 64 |
| | 총 무 | 박 재 정 | 71 |
| 안 동 | 회 장 | 배 주 석 | 53 |
| | 총 무 | 박 영 록 | 72 |
| 영 주 | 회 장 | 정 웅 환 | 58 |
| | 총 무 | 김 석 진 | 66 |

| 지 부 | 직 책 | 성 명 | 회 수 |
|------------------|------|-------|-----|
| 영 천 | 회 장 | 이 광 온 | 54 |
| | 사무국장 | 최 장 욱 | 62 |
| | 사무처장 | 김 국 진 | 68 |
| 포 향 | 회 장 | 정 제 일 | 58 |
| | 총 무 | 정 태 연 | 61 |
| 성 주 | 회 장 | 김 석 규 | 53 |
| | 총 무 | 백 명 현 | 58 |
| 고 령 | 회 장 | 김 수 호 | 52 |
| | 총 무 | 손 창 응 | 62 |
| 영 덕 | 회 장 | 김 상 수 | 48 |
| | 총 무 | 김 경 태 | 60 |
| 울 진 | 회 장 | 지 용 광 | 58 |
| | 총 무 | 임 정 준 | 75 |
| 의 성 | 회 장 | 최 재 영 | 53 |
| 청 도 | 회 장 | 이 종 복 | 59 |
| | 총 무 | 전 태 용 | 63 |
| 칠 곡 | 회 장 | 서 광 수 | 54 |
| | 총 무 | 박 경 수 | 66 |
| 충 주 | 회 장 | 이 광 호 | 62 |
| | 총 무 | 오 재 규 | 67 |
| 청 주 | 회 장 | 배 창 식 | 56 |
| | 총 무 | 이 재 범 | 70 |
| 제 천 | 회 장 | 배 상 환 | 65 |
| | 총 무 | 위 성 목 | 75 |
| 원 주 | 회 장 | 진 두 현 | 57 |
| | 총 무 | 이 상 갑 | 67 |
| 와촌/ 진량/ 하양 | 회 장 | 허 병 역 | 50 |
| | 총 무 | 박 연 도 | 65 |
| 충 남 (천안) | 회 장 | 도 재 열 | 54 |
| | 총 무 | 정 종 진 | 77 |
| 성남/ 용인 | 회 장 | 김 우 구 | 58 |
| | 총 무 | 빈 상 수 | 58 |
| | 총 무 | 정 상 길 | 64 |
| 제 주 | 총 무 | 김 경 연 | 65 |

기별 · 지부별 · 동호회임원명단

2011년도 동호회 회장단

| 동 호 회 | 직 책 | 성 명 | 회 수 |
|-----------------|------|-------|-----|
| 계 룩 회 | 회 장 | 권 수 보 | 38 |
| | 총 무 | 강 석 교 | 27 |
| 계 성 목 장 회 | 회 장 | 최 태 조 | 48 |
| | 총 무 | 이 창 식 | 49 |
| | 총 무 | 권 영 압 | 60 |
| 계 성 목 우 회 | 회 장 | 박 재 천 | 50 |
| | 총 무 | 박 현 식 | 57 |
| 계 성 문 학 회 | 회 장 | 이 수 남 | 50 |
| | 편집국장 | 정 영 웅 | 48 |
| | 사무국장 | 정 만 진 | 61 |
| 총 동 창 산 우 회 | 회 장 | 장 승 환 | 54 |
| | 총 무 | 주 이 광 | 60 |
| | 총 무 | 한 상 도 | 65 |
| | 총 무 | 송 준 석 | 67 |
| 기 우 회 | 회 장 | 이 준 기 | 56 |
| | 총 무 | 김 기 영 | 72 |
| 계 마 회 | 회 장 | 고 동 현 | 57 |
| | 총 무 | 서 관 호 | 63 |
| 대 구 범 조 동 문 회 | 회 장 | 이 준 기 | 56 |
| | 총 무 | 김 병 익 | 71 |
| 성 일 회 | 회 장 | 황 기 선 | 62 |
| | 총 무 | 백 희 태 | 73 |
| 계 성 동 문 미 술 인 회 | 회 장 | 박 해 동 | 42 |
| | 총 무 | 이 종 윤 | 55 |
| 계 동 회 | 회 장 | 이 도 영 | 54 |
| | 총 무 | 김 성 환 | 61 |
| 약 우 회 | 회 장 | 김 동 진 | 58 |
| | 총 무 | 김 근 배 | 61 |
| | 간 사 | 이 희 재 | 66 |
| 계 성 O . B 산 우 회 | 회 장 | 이 창 역 | 68 |
| | 총 무 | 한 병 역 | 80 |
| 계 성 동 문 축 구 회 | 회 장 | 정 만 현 | 71 |
| | 총 무 | 조 재 현 | 78 |
| 농 구 인 동 문 회 | 회 장 | 박 정 화 | 63 |
| | 사무국장 | 정 재 천 | 71 |
| | 사무차장 | 이 준 렬 | 77 |
| 유 도 동 문 회 | 회 장 | 이 강 호 | 69 |
| | 총 무 | 박 상 열 | 79 |
| 성 룩 회 | 회 장 | 박 상 식 | 56 |
| | 총 무 | 노 현 석 | 72 |
| 대 구 한 의 사 회 | 회 장 | 박 명 하 | 69 |
| | 총 무 | 이 건 형 | 71 |
| 계 성 유 음 회 | 사무국장 | 박 승 일 | 78 |

기금 납부자 내용

장학기금 납부자 내용

| 성명 | 기수 | 금액 | 성명 | 기수 | 금액 | 성명 | 기수 | 금액 |
|---------|----|-------------|---------|----|------------|---------|----|------------|
| 장성훈 | 23 | 800,000 | 41회 동기회 | 41 | 5,000,000 | 신길수 | 44 | 100,000 |
| 장기일 | 26 | 5,050,000 | 김용태 | 41 | 5,000,000 | 신홍욱 | 44 | 100,000 |
| 이성행 | 27 | 5,000,000 | 김재환 | 41 | 585,770 | 이광현 | 44 | 500,000 |
| 29회 동기회 | 29 | 300,000 | 김태선 | 41 | 190,000 | 이도환 | 44 | 200,000 |
| 이수광 | 29 | 1,000,000 | 손경택 | 41 | 500,000 | 이병목 | 44 | 100,000 |
| 30회 동기회 | 30 | 300,000 | 우정택 | 41 | 1,000,000 | 이병휴 | 44 | 1,000,000 |
| 심창원 | 30 | 100,000 | 이상기 | 41 | 12,615,000 | 이복영 | 44 | 50,000 |
| 이형두 | 30 | 100,000 | 42회 동기회 | 42 | 5,000,000 | 이승남 | 44 | 1,000,000 |
| 31회 동기회 | 31 | 1,000,000 | 권병좌 | 42 | 1,000,000 | 이승준 | 44 | 1,000,000 |
| 오상건 | 31 | 100,000 | 김경동 | 42 | 1,000,000 | 정은구 | 44 | 1,100,000 |
| 이상영 | 31 | 100,000 | 김명희 | 42 | 100,000 | 정진호 | 44 | 1,000,000 |
| 김호영 | 32 | 300,000 | 김세만 | 42 | 100,000 | 하석원 | 44 | 300,000 |
| 재경32회 | 32 | 300,000 | 김재기 | 42 | 100,000 | 45회 동기회 | 45 | 7,000,000 |
| 33회 동기회 | 33 | 1,500,000 | 김장환 | 42 | 1,000,000 | 곽병영 | 45 | 1,000,000 |
| 박영득 | 33 | 300,000 | 남창호 | 42 | 200,000 | 김웅김 | 45 | 30,000,000 |
| 허경발 | 34 | 1,000,000 | 박영대 | 42 | 400,000 | 김재현 | 45 | 100,000 |
| 35회 동기회 | 35 | 200,000 | 소홍렬 | 42 | 1,000,000 | 김정화 | 45 | 1,000,000 |
| 신용수 | 35 | 100,000 | 유환무 | 42 | 140,000 | 김형규 | 45 | 1,000,000 |
| 이형섭 | 35 | 150,000,000 | 이만환 | 42 | 100,000 | 남태호 | 45 | 300,000 |
| 36회 동기회 | 36 | 300,000 | 이무호 | 42 | 1,000,000 | 신성택 | 45 | 10,000,000 |
| 이종록 | 36 | 100,000 | 이종진 | 42 | 1,000,000 | 양춘기 | 45 | 1,000,000 |
| 박기진 | 37 | 15,000,000 | 장영철 | 42 | 10,000,000 | 윤위한 | 45 | 300,000 |
| 신동욱 | 37 | 100,000 | 전병직 | 42 | 1,000,000 | 이경희 | 45 | 30,000 |
| 38회 동기회 | 38 | 600,000 | 최주건 | 42 | 100,000 | 이규력 | 45 | 300,000 |
| 권수보 | 38 | 100,000 | 43회 동기회 | 43 | 9,000,000 | 이규신 | 45 | 100,000 |
| 박병권 | 38 | 1,000,000 | 김신희 | 43 | 140,000 | 이종학 | 45 | 2,000,000 |
| 박성대 | 38 | 30,000,000 | 김창동 | 43 | 117,154 | 정창화 | 45 | 1,000,000 |
| 변성길 | 38 | 1,000,000 | 김현호 | 43 | 100,000 | 정충영 | 45 | 1,000,000 |
| 변병삼 | 38 | 1,000,000 | 노중형 | 43 | 1,000,000 | 조용상 | 45 | 100,000 |
| 이성환 | 38 | 1,000,000 | 정문원 | 43 | 200,000 | 46회 동기회 | 46 | 7,000,000 |
| 이원석 | 38 | 1,000,000 | 정조섭 | 43 | 200,000 | 김성수 | 46 | 1,000,000 |
| 이재찬 | 38 | 500,000 | 정진구 | 43 | 200,000 | 김의도 | 46 | 500,000 |
| 재경38회 | 38 | 1,000,000 | 한태철 | 43 | 100,000 | 김태경 | 46 | 150,000 |
| 최규석 | 38 | 1,000,000 | 44회 동기회 | 44 | 5,000,000 | 류호민 | 46 | 200,000 |
| 39회 동기회 | 39 | 1,000,000 | 곽병삼 | 44 | 10,000,000 | 박청일 | 46 | 300,000 |
| 김경호 | 39 | 100,000 | 김기봉 | 44 | 100,000 | 박평우 | 46 | 300,000 |
| 서정원 | 39 | 100,000 | 김병철·손재정 | | | 서정호 | 46 | 1,000,000 |
| 장기홍 | 39 | 500,000 | 산림회·정은구 | 44 | 10,000,000 | 성부홍 | 46 | 3,000,000 |
| 최수년 | 39 | 200,000 | 한영석 | | | 소현수 | 46 | 1,000,000 |
| 40회 동기회 | 40 | 500,000 | 김상웅 | 44 | 500,000 | 우세홍 | 46 | 400,000 |
| 강정관 | 40 | 3,000,000 | 김상익 | 44 | 100,000 | 유호민 | 46 | 100,000 |
| 김도년 | 40 | 100,000 | 김수광 | 44 | 1,000,000 | 윤신박 | 46 | 1,000,000 |
| 김봉운 | 40 | 1,000,000 | 김양상 | 44 | 100,000 | 이덕옥 | 46 | 200,000 |
| 김재봉 | 40 | 200,000 | 김원동 | 44 | 100,000 | 이도수 | 46 | 150,000 |
| 김홍근 | 40 | 2,000,000 | 김정문 | 44 | 50,000 | 이수일 | 46 | 100,000 |
| 문찬영 | 40 | 1,000,000 | 문종열 | 44 | 100,000 | 47회 동기회 | 47 | 7,000,000 |
| 박준식 | 40 | 100,000 | 박성복 | 44 | 100,000 | 김국언 | 47 | 500,000 |
| 송이호 | 40 | 500,000 | 성우식 | 44 | 200,000 | 김근조 | 47 | 80,000 |
| 허종중 | 40 | 700,000 | 손재창 | 44 | 30,000 | 김성광 | 47 | 20,000 |

기금 납부자 내용

장학기금 납부자 내용

| 성명 | 기수 | 금액 | 성명 | 기수 | 금액 | 성명 | 기수 | 금액 |
|---------|----|------------|---------|----|-------------|---------|----|-------------|
| 김윤수 | 47 | 10,000,000 | 51회 동기획 | 51 | 10,000,000 | 박정동 | 53 | 300,000 |
| 마상곤 | 47 | 10,000,000 | 김성식 | 51 | 100,000 | 서정태 | 53 | 200,000 |
| 마준호 | 47 | 100,000 | 박영환 | 51 | 100,000 | 손장우 | 53 | 100,000 |
| 박동섭 | 47 | 100,000 | 박하규 | 51 | 20,000,000 | 우충만 | 53 | 100,000 |
| 서삼덕 | 47 | 3,117,154 | 배진찬 | 51 | 100,000 | 윤충훈 | 53 | 3,000,000 |
| 여동영 | 47 | 10,000,000 | 이기선 | 51 | 200,000 | 이병구 | 53 | 100,000,000 |
| 우두현 | 47 | 3,000,000 | 이호철 | 51 | 200,000 | 이상달 | 53 | 600,000 |
| 유병규 | 47 | 200,000 | 정영복 | 51 | 300,000 | 이원동 | 53 | 200,000 |
| 이병우 | 47 | 200,000 | 차종렬 | 51 | 100,000 | 이형환 | 53 | 100,000 |
| 조상종 | 47 | 100,000 | 최정수 | 51 | 100,000 | 정은식 | 53 | 50,000 |
| 조준익 | 47 | 50,000 | 황성길 | 51 | 1,000,000 | 최백영 | 53 | 100,000 |
| 조주제 | 47 | 5,000,000 | 52회 동기획 | 52 | 10,000,000 | 최인식 | 53 | 100,000 |
| 48회 동기획 | 48 | 7,000,000 | 김경호 | 52 | 100,000 | 54회 동기획 | 54 | 10,000,000 |
| 김종섭 | 48 | 50,000 | 김수호 | 52 | 100,000 | 김경원 | 54 | 1,000,000 |
| 박실 | 48 | 300,000 | 김시우 | 52 | 100,000 | 김선동 | 54 | 500,000 |
| 박영남 | 48 | 1,000,000 | 김신웅 | 52 | 2,700,000 | 박지주 | 54 | 50,000 |
| 박정도 | 48 | 100,000 | 김영식 | 52 | 117,154 | 성현욱 | 54 | 200,000 |
| 우흥기 | 48 | 10,000 | 김원수 | 52 | 90,000 | 신재복 | 54 | 100,000 |
| 이재환 | 48 | 100,000 | 김재영 | 52 | 50,000 | 안재홍 | 54 | 100,000 |
| 이종하 | 48 | 100,000 | 김종문 | 52 | 100,000 | 양충희 | 54 | 100,000 |
| 임덕치 | 48 | 50,000 | 노병달 | 52 | 100,000 | 오은환 | 54 | 50,000 |
| 임무광 | 48 | 100,000 | 박종철 | 52 | 300,000 | 위재곤 | 54 | 1,100,000 |
| 임상덕 | 48 | 100,000 | 배태덕 | 52 | 300,000 | 이윤식 | 54 | 200,000 |
| 최태조 | 48 | 100,000 | 서상근 | 52 | 100,000 | 이창동 | 54 | 100,000 |
| 49회 동기획 | 49 | 7,000,000 | 서정환 | 52 | 100,000 | 장호진 | 54 | 50,000 |
| 강성구 | 49 | 100,000 | 서창국 | 52 | 100,000 | 채형기 | 54 | 200,000 |
| 강일영 | 49 | 100,000 | 성기두 | 52 | 300,000 | 55회 동기획 | 55 | 10,000,000 |
| 김무영 | 49 | 10,100,000 | 유윤철 | 52 | 100,000,000 | 구종희 | 55 | 10,000 |
| 김영만 | 49 | 150,000 | 윤동한 | 52 | 20,000,000 | 김대환 | 55 | 1,000,000 |
| 김지홍 | 49 | 117,154 | 윤월보 | 52 | 150,000 | 김상환 | 55 | 100,000 |
| 안영근 | 49 | 117,154 | 이상구 | 52 | 300,000 | 김재복 | 55 | 300,000 |
| 윤성광 | 49 | 400,000 | 이승한 | 52 | 10,000,000 | 김홍익 | 55 | 200,000 |
| 이동성 | 49 | 100,000 | 이종희 | 52 | 100,000 | 류대현 | 55 | 50,000 |
| 이성화 | 49 | 100,000 | 이태우 | 52 | 100,000 | 박노진 | 55 | 100,000 |
| 이수목 | 49 | 100,000 | 임현석 | 52 | 100,000 | 윤웅희 | 55 | 100,000 |
| 이준섭 | 49 | 100,000 | 정수열 | 52 | 200,000 | 윤재락 | 55 | 100,000 |
| 정영수 | 49 | 1,000,000 | 한정인 | 52 | 10,000,000 | 이철우 | 55 | 100,000 |
| 한영기 | 49 | 200,000 | 허성욱 | 52 | 300,000 | 정만영 | 55 | 100,000 |
| 50회 동기획 | 50 | 10,000,000 | 53회 동기획 | 53 | 10,000,000 | 정명수 | 55 | 300,000 |
| 곽병만 | 50 | 1,000,000 | 강성득 | 53 | 150,000 | 정인국 | 55 | 585,770 |
| 곽태 | 50 | 40,000 | 김대관 | 53 | 100,000 | 조현발 | 55 | 5,000,000 |
| 곽태현 | 50 | 100,000 | 김대영 | 53 | 100,000 | 한계연 | 55 | 50,000 |
| 김대곤 | 50 | 20,000,000 | 김범수 | 53 | 10,000,000 | 한낙관 | 55 | 100,000 |
| 김덕수 | 50 | 1,000,000 | 김선영 | 53 | 200,000 | 한창조 | 55 | 100,000 |
| 박연탁 | 50 | 10,000,000 | 김유석 | 53 | 50,000 | 56회 동기획 | 56 | 10,000,000 |
| 배경호 | 50 | 100,000 | 김재국 | 53 | 585,770 | 강상학 | 56 | 1,000,000 |
| 이수남 | 50 | 500,000 | 김진철 | 53 | 100,000 | 김병임 | 56 | 1,000,000 |
| 이시원 | 50 | 20,000,000 | 김진찬 | 53 | 110,000 | 김이규 | 56 | 58,577 |
| 하죽 | 50 | 200,000 | 박동식 | 53 | 100,000 | 김익환 | 56 | 2,100,000 |

기금 납부자 내용

장학기금 납부자 내용

| 성명 | 기수 | 금액 | 성명 | 기수 | 금액 | 성명 | 기수 | 금액 |
|--------|----|------------|--------|----|------------|--------|----|------------|
| 김정길 | 56 | 100,000 | 이병한 | 59 | 100,000 | 이영중 | 63 | 250,000 |
| 김종기 | 56 | 100,000 | 이석진 | 59 | 200,000 | 최상조 | 63 | 50,000 |
| 김진우 | 56 | 30,000 | 전철호 | 59 | 100,000 | 홍언호 | 63 | 10,000 |
| 김타열 | 56 | 3,000,000 | 60회동기회 | 60 | 10,000,000 | 홍준철 | 63 | 100,000 |
| 노종수 | 56 | 200,000 | 권혁중 | 60 | 300,000 | 64회동기회 | 64 | 10,000,000 |
| 배창식 | 56 | 100,000 | 김동섭 | 60 | 100,000 | 김덕순 | 64 | 100,000 |
| 서진원 | 56 | 100,000 | 김용신 | 60 | 100,000 | 김원룡 | 64 | 1,000,000 |
| 서희수 | 56 | 117,154 | 김재희 | 60 | 3,000,000 | 김치곤 | 64 | 100,000 |
| 신준근 | 56 | 400,000 | 명우근 | 60 | 100,000 | 손중배 | 64 | 10,100,000 |
| 양덕준 | 56 | 50,000,000 | 박상균 | 60 | 100,000 | 여상삼 | 64 | 100,000 |
| 윤태홍 | 56 | 100,000 | 배성찬 | 60 | 200,000 | 이동걸 | 64 | 100,000 |
| 이길 | 56 | 2,500,000 | 서성 | 60 | 100,000 | 이영호 | 64 | 200,000 |
| 이재윤 | 56 | 10,000,000 | 안소길 | 60 | 100,000 | 이종완 | 64 | 100,000 |
| 전병철 | 56 | 500,000 | 우계윤 | 60 | 200,000 | 이준성 | 64 | 300,000 |
| 정인표 | 56 | 500,000 | 윤경덕 | 60 | 100,000 | 창준영 | 64 | 500,000 |
| 조병화 | 56 | 200,000 | 이태진 | 60 | 100,000 | 전형배 | 64 | 100,000 |
| 조용목 | 56 | 100,000 | 임경국 | 60 | 100,000 | 정봉남 | 64 | 100,000 |
| 차한공 | 56 | 100,000 | 임병헌 | 60 | 300,000 | 정재호 | 64 | 200,000 |
| 57회동기회 | 57 | 10,500,000 | 정명용 | 60 | 20,000 | 최혁준 | 64 | 80,000 |
| 박국현 | 57 | 200,000 | 정익표 | 60 | 100,000 | 허인태 | 64 | 100,000 |
| 박현식 | 57 | 1,000,000 | 조영주 | 60 | 5,000,000 | 65회동기회 | 65 | 10,000,000 |
| 서현주 | 57 | 100,000 | 전희욱 | 60 | 100,000 | 권주수 | 65 | 100,000 |
| 신오식 | 57 | 250,000 | 현덕환 | 60 | 100,000 | 박영태 | 65 | 10,000 |
| 신중권 | 57 | 100,000 | 61회동기회 | 61 | 10,000,000 | 사창동 | 65 | 100,000 |
| 장도수 | 57 | 100,000 | 박중호 | 61 | 6,000,000 | 오근수 | 65 | 100,000 |
| 허환 | 57 | 180,000 | 이성우 | 61 | 100,000 | 이경국 | 65 | 400,000 |
| 58회동기회 | 58 | 10,000,000 | 이영우 | 61 | 100,000 | 진임근 | 65 | 100,000 |
| 권병화 | 58 | 100,000 | 이창재 | 61 | 300,000 | 김성기 | 66 | 600,000 |
| 김기웅 | 58 | 1,000,000 | 장철상 | 61 | 10,000 | 박경수 | 66 | 300,000 |
| 김영근 | 58 | 300,000 | 정만진 | 61 | 100,000 | 장용원 | 66 | 100,000 |
| 김준호 | 58 | 100,000 | 최광우 | 61 | 100,000 | 제갈영순 | 66 | 200,000 |
| 김희국 | 58 | 400,000 | 62회동기회 | 62 | 10,000,000 | 김광식 | 67 | 100,000 |
| 박소관 | 58 | 100,000 | 권혁도 | 62 | 20,000 | 최동근 | 67 | 20,000 |
| 박옥근 | 58 | 100,000 | 김성수 | 62 | 100,000 | 68회동기회 | 68 | 10,000,000 |
| 박준규 | 58 | 300,000 | 김진익 | 62 | 200,000 | 김원중 | 68 | 50,000 |
| 서정쌍 | 58 | 200,000 | 박병렬 | 62 | 100,000 | 김정호 | 68 | 100,000 |
| 임재길 | 58 | 460,000 | 박창현 | 62 | 576,040 | 박노태 | 68 | 117,154 |
| 우정구 | 58 | 100,000 | 변재진 | 62 | 100,000 | 박무희 | 68 | 58,577 |
| 윤석용 | 58 | 1,000,000 | 이광호 | 62 | 100,000 | 안경철 | 68 | 400,000 |
| 이국희 | 58 | 200,000 | 63회동기회 | 63 | 10,000,000 | 차경택 | 68 | 50,000 |
| 정인조 | 58 | 10,000,000 | 김영주 | 63 | 100,000 | 최대술 | 68 | 40,000 |
| 정재덕 | 58 | 117,154 | 김은철 | 63 | 100,000 | 69회동기회 | 69 | 10,000,000 |
| 홍욱헌 | 58 | 100,000 | 김정한 | 63 | 40,000 | 김동섭 | 69 | 100,000 |
| 59회동기회 | 59 | 10,000,000 | 남성철 | 63 | 3,423,424 | 김진만 | 69 | 100,000 |
| 김무달 | 59 | 200,000 | 박세진 | 63 | 150,000 | 류병민 | 69 | 50,000 |
| 박은영 | 59 | 50,000 | 반용음 | 63 | 1,000,000 | 서재웅 | 69 | 100,000 |
| 신세원 | 59 | 100,000 | 배세달 | 63 | 50,000 | 성기신 | 69 | 50,000 |
| 유승왕 | 59 | 6,000,000 | 오은총 | 63 | 100,000 | 이재곤 | 69 | 150,000 |
| 유완석 | 59 | 1,000,000 | 이상필 | 63 | 60,000 | 장상배 | 69 | 50,000 |

기금 납부자 내용

장학기금 납부자 내용

| 성명 | 기수 | 금액 |
|---------|----|---------------|
| 장영환 | 69 | 100,000 |
| 정한상 | 69 | 1,000,000 |
| 70회 동기회 | 70 | 7,000,000 |
| 서태호 | 70 | 50,000 |
| 이국도 | 70 | 100,000 |
| 최원길 | 70 | 100,000 |
| 황상태 | 70 | 50,000 |
| 71회 동기회 | 71 | 7,000,000 |
| 김준호 | 71 | 1,500,000 |
| 박찬동 | 71 | 150,000 |
| 박창순 | 71 | 20,000 |
| 여인성 | 71 | 100,000 |
| 윤규열 | 71 | 10,000 |
| 이형석 | 71 | 100,000 |
| 정유진 | 71 | 200,000 |
| 황창구 | 71 | 50,000 |
| 72회 동기회 | 72 | 7,000,000 |
| 이정호 | 72 | 240,000 |
| 강병국 | 73 | 100,000 |
| 이상섭 | 73 | 30,000 |
| 74회 동기회 | 74 | 7,000,000 |
| 김시익 | 74 | 40,000 |
| 신창철 | 74 | 100,000 |
| 이재영 | 74 | 60,000 |
| 장재동 | 74 | 117,154 |
| 남동우 | 77 | 1,000,000 |
| 남재울 | 77 | 100,000 |
| 이승환 | 77 | 100,000 |
| 이인세 | 78 | 50,000 |
| 무명 | - | 100,000 |
| 무명 | - | 10,000 |
| 무명 | - | 30,000 |
| 경주지부 | | 1,000,000 |
| 고령지부 | | 300,000 |
| 구미지부 | | 500,000 |
| 시카고지부 | | 2,667,150 |
| 영덕지부 | | 500,000 |
| 영천지부 | | 1,000,000 |
| 울진지부 | | 200,000 |
| 월주지부 | | 400,000 |
| 제천지부 | | 400,000 |
| 포항지부 | | 3,000,000 |
| | | |
| | | |
| | | |
| 총계 | | 1,186,420,464 |

기수, 지부별 납입금 내용

| 기 수 | 금 액 |
|-----|-------------|
| 23회 | 800,000 |
| 26회 | 5,050,000 |
| 27회 | 5,000,000 |
| 29회 | 1,300,000 |
| 30회 | 500,000 |
| 31회 | 1,200,000 |
| 32회 | 600,000 |
| 33회 | 1,800,000 |
| 34회 | 1,000,000 |
| 35회 | 150,300,000 |
| 36회 | 400,000 |
| 37회 | 15,100,000 |
| 38회 | 38,200,000 |
| 39회 | 1,900,000 |
| 40회 | 9,100,000 |
| 41회 | 24,890,770 |
| 42회 | 23,240,000 |
| 43회 | 11,057,154 |
| 44회 | 33,830,000 |
| 45회 | 56,230,000 |
| 46회 | 16,400,000 |
| 47회 | 49,467,154 |
| 48회 | 9,010,000 |
| 49회 | 19,684,308 |
| 50회 | 62,940,000 |
| 51회 | 32,200,000 |
| 52회 | 155,907,154 |
| 53회 | 126,345,770 |
| 54회 | 13,750,000 |
| 55회 | 18,295,770 |
| 56회 | 82,305,731 |
| 57회 | 12,430,000 |
| 58회 | 24,577,154 |
| 59회 | 17,750,000 |
| 60회 | 20,220,000 |
| 61회 | 16,710,000 |
| 62회 | 11,196,040 |
| 63회 | 15,433,424 |
| 64회 | 23,180,000 |
| 65회 | 10,810,000 |
| 66회 | 1,200,000 |
| 67회 | 120,000 |
| 68회 | 10,815,731 |
| 69회 | 11,700,000 |
| 70회 | 7,300,000 |
| 71회 | 9,130,000 |
| 72회 | 7,240,000 |
| 73회 | 130,000 |
| 74회 | 7,317,154 |

| 기 수 | 금 액 |
|-------|---------------|
| 77회 | 1,200,000 |
| 78회 | 50,000 |
| 경주지부 | 1,000,000 |
| 고령지부 | 300,000 |
| 구미지부 | 500,000 |
| 시카고지부 | 2,667,150 |
| 영덕지부 | 500,000 |
| 영천지부 | 1,000,000 |
| 울진지부 | 200,000 |
| 원주지부 | 400,000 |
| 제천지부 | 400,000 |
| 포항지부 | 3,000,000 |
| 무 명 | 140,000 |
| 총 계 | 1,186,420,464 |

재학생 Mentor 협찬 동문

| 성 명 (기수) | 금 액 |
|-----------|--------------|
| 백경진 (53회) | 1명 |
| 사광훈 (53회) | 2명 |
| 이재운 (56회) | 2명/모교도서 100권 |
| 김상태 (58회) | 매월 기증 |
| 김동은 (58회) | 8명 |
| 김도은 (77회) | 1명 |

회보 구독료

회보 구독료 납부자 내용 [2010. 11. 1-2011. 3. 31]

| 성명 | 기수 | 금액 | 성명 | 기수 | 금액 | 성명 | 기수 | 금액 |
|--------|----|---------|-----|----|---------|-------|----|-----------|
| 2010년 | | | 김신웅 | 52 | 50,000 | 무명 | | 20,000 |
| 김세현 | 29 | 30,000 | 송종영 | 52 | 20,000 | 무명 | | 10,000 |
| 서복섭 | 31 | 10,000 | 강성길 | 53 | 10,000 | 2011년 | | |
| 김상규 | 38 | 10,000 | 김규상 | 54 | 20,000 | 장기일 | 26 | 100,000 |
| 강병락 | 39 | 10,000 | 김중기 | 54 | 50,000 | 이주국 | 31 | 10,000 |
| 이무호 | 42 | 60,000 | 박지주 | 54 | 30,000 | 김경창 | 36 | 10,000 |
| 서상봉 | 42 | 10,000 | 박동권 | 54 | 20,000 | 김정용 | 39 | 20,000 |
| 백영수 | 42 | 10,000 | 이도영 | 54 | 30,000 | 임재규 | 42 | 10,000 |
| 김세만 | 42 | 10,000 | 박종두 | 55 | 10,000 | 신용욱 | 44 | 10,000 |
| 정문원 | 43 | 100,000 | 유효일 | 55 | 50,000 | 이성환 | 46 | 30,000 |
| 채근수 | 44 | 20,000 | 한창조 | 55 | 10,000 | 박심 | 48 | 10,000 |
| 윤경호 | 45 | 20,000 | 장재호 | 56 | 20,000 | 이종하 | 48 | 10,000 |
| 박성규 | 45 | 10,000 | 조원복 | 56 | 10,000 | 김광남 | 49 | 30,000 |
| 장홍덕 | 46 | 20,000 | 이상근 | 57 | 10,000 | 김종길 | 49 | 10,000 |
| 강세진 | 47 | 30,000 | 조병철 | 58 | 100,000 | 주종이 | 50 | 100,000 |
| 장활광 | 47 | 50,000 | 임복원 | 58 | 30,000 | 허성욱 | 52 | 10,000 |
| 전규용 | 47 | 10,000 | 서정생 | 58 | 10,000 | 박병기 | 53 | 10,000 |
| 47회동기회 | 47 | 30,000 | 윤석균 | 59 | 50,000 | 하태철 | 53 | 10,000 |
| 이준기 | 47 | 10,000 | 김중식 | 59 | 50,000 | 이정진 | 53 | 20,000 |
| 여동영 | 47 | 50,000 | 최홍식 | 59 | 10,000 | 정운식 | 53 | 20,000 |
| 강대성 | 47 | 10,000 | 김한수 | 60 | 20,000 | 박도읍 | 53 | 10,000 |
| 문영웅 | 47 | 10,000 | 석호전 | 60 | 50,000 | 서재권 | 54 | 10,000 |
| 김순일 | 48 | 10,000 | 김영호 | 60 | 20,000 | 김대진 | 56 | 10,000 |
| 권석형 | 48 | 10,000 | 김영웅 | 61 | 20,000 | 김규중 | 57 | 100,000 |
| 최태조 | 48 | 10,000 | 안장일 | 61 | 10,000 | 임병현 | 60 | 10,000 |
| 마용웅 | 48 | 15,000 | 최재경 | 63 | 20,000 | 장상헌 | 60 | 30,000 |
| 설춘수 | 49 | 20,000 | 장태진 | 63 | 20,000 | 김호중 | 60 | 10,000 |
| 강민구 | 49 | 10,000 | 곽준영 | 63 | 20,000 | 이근재 | 61 | 10,000 |
| 류수민 | 49 | 10,000 | 정봉남 | 64 | 10,000 | 정한관 | 63 | 10,000 |
| 이성화 | 49 | 50,000 | 송준산 | 64 | 10,000 | 김종희 | 63 | 10,000 |
| 김동하 | 50 | 30,000 | 권오철 | 64 | 100,000 | 전형배 | 64 | 10,000 |
| 이원락 | 50 | 50,000 | 김희태 | 65 | 10,000 | 홍종욱 | 65 | 20,000 |
| 김승보 | 50 | 10,000 | 하태동 | 66 | 10,000 | 우명진 | 66 | 20,000 |
| 노임영 | 50 | 30,000 | 김성호 | 67 | 10,000 | 김창수 | 69 | 10,000 |
| 김도혁 | 50 | 10,000 | 정운진 | 70 | 100,000 | 무명 | | 30,000 |
| 이재광 | 50 | 10,000 | 서정교 | 74 | 50,000 | 무명 | | 20,000 |
| 김성식 | 51 | 10,000 | 임정준 | 75 | 30,000 | 합계 | | |
| 김병희 | 51 | 10,000 | 이진원 | 77 | 10,000 | | | 2,715,000 |
| 이수환 | 52 | 10,000 | 백길영 | 80 | 10,000 | | | |